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선정 공연 소개 자료

[연극]

연극 1 (주)예술무대산 : 손 없는 색시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예술무대산		
공연명	손 없는 색시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sanalive.co.kr
실무자명	김진영	E-mail	artstagesan@gmail.com
		연락처	(031) 836-2993
단체소개	<p>예술무대산은 인형이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고인형극이 가지는 가능성과 인형극의 문법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창작하는 단체입니다. 2001년 창단된 이래 인형과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공연 외에도 축제기획, 체험, 전시 및 국제교류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p> <p>대표작 '달래이야기' 는 유럽과 남미 등 20개국 이상에서 선보여 왔으며 2009년 스페인 티티리자이 축제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2012년 중국 유니마(UNIMA_세계인형극협회) 총회에서 '베스트 플레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인형극단 '판게아아츠(Pangaea Arts)'와 국제입양을 소재로 공동 제작한 작품 '상자'는 2015년 한국연극올해의 베스트 연극 7에 선정되었으며, 일본의 그림자 극단 '카카시좌'와 3년 넘게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공동제작 작품 '루루섬의 비밀' 을 창작하였습니다.</p> <p>그 외에도 힘겨운 셸리리만의 하루를 다룬 '그의 하루', 설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현대사회에 맞게 각색한 '견우와 직녀', '손 없는 색시' 등을 창작하며 인형극이 단순한 아동극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장르로서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1주, 2주, 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2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23 화성아트홀 유엔아이센터 초청공연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 2019.6.26~7.4 BeSeTo 국제연극제 초청공연 ○ 2019.4.24~25 대전예술의전당, 6.26~7.4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 (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 ○ 2018.4.26~5.7 남산예술센터 시즌프로그램 선정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08.04.~08.08. 노원어린이극장, 루루섬의 비밀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 2. 2021.06.14.~11.24. 장성여중 외 9곳, 로미오와 줄리엣 (신나는 예술여행) 3. 2022.07.30.~08.11. 일본 나하문화예술극장 외 3곳, 달래이야기 4. 2022.11.11.~11.12. 의정부아트캠프 블랙, 하얀나라 (상주단체 신작) 5. 2023.07.03.~07.18. 인도 첸나이 등 3도시 투어, 그의 하루 (트래블링코리아아츠) 6. 2023.12.01.~12.02.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산초와 돈키호테 (상주단체 신작) 		
공연영상	하이라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3fnZRtOeYzY 풀영상: https://photos.app.goo.gl/KPaYnsrk8Qyed619		
참여인원	총 19명 (출연진 7명 / 스태프 12명)		
소요시간	총 8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일반인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p style="text-align: center;">객석규모</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면적</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시설</p>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6m)× 깊이(10m)	- 바텐 4개 이상 필요. - 조명은 공연장 상황에 맞게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 및 제작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노트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것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불완전한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결여를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조금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임을 손 없는 색시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 인형극의 다양한 상징과 은유 -인형극은 여백이 많은 예술이다. 연극이지만 인형이 가진 비중이 큰 만큼 관객들이 상상하고 채워 넣어야 할 공간들이 많다. 관객은 인형의 하나의 표정 안에 숨어 있는 슬한 가정과 상념을 스스로 상상하며 인형극만의 매력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손'의 오브제와 무대 세트, 그리고 과감히 강조되거나 혹은 생략된 인형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연출하고자 한다. ○ 기존 연극의 고정관념을 깨는 판타지 -무대와 객석 곳곳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는 이야기꾼이자 인형 연기자이다. 때로는 광대처럼, 때로는 정령처럼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며 시적인 전개와 독특한 분위기, 묵직한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컨셉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와 고통 그리고 치유 -<손 없는 색시>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성찰과 아픔, 회복과 믿음을 꿈꾸는 이야기이다. 기존 손 없는 색시 설화에서 손이 부재하고 재생하는 방식을, 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상상으로 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재탄생시켰다. 극단 예술무대산 특유의 감수성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인형들로 시적인 은유와 미학을 더하고 배우들이 함께 이야기꾼들의 재담과 놀이 같은 형식으로 풀어낸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늘 아픈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색시에게 어느 날 손은 더는 슬픔을 대하기 싫다며 스스로 떨어져 나와 떠나버린다. 떠난 손을 찾으러 가는 색시와 색시의 아들 붉은 점의 파란 만장한 여정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와 불행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물음에 닿는다. 손을 결국 찾지만 그 동안 아물어버린 상처로 인해 붙을 수 없게 된 손과 색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설화의 공식을 깨뜨린다. 결국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처를 기꺼이 인정하고 곁에 두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및 특징</p>	<p>작품의 주된 재료: 인형과 오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모든 인형은 각자가 안고 있는 상처와 이야기가 있다. 본 공연의 인형의 주요 소재는 거즈이다. 상처를 치료할 때 감아주던 거즈로 표면처리를 한 인형의 면을 채색하고 문지르기를 반복하여 하나의 인형이 탄생한다. 이는 상처와 치유로 대표되는 작품의 메시지를 상징적이면서도 명확한 소재로 관통한다. -<손 없는 색시>에서는 특히 다양한 인형의 형태가 등장한다. 손 인형, 관절 인형과 같은 기존에 많이 쓰이는 인형 외에도 인형 머리와 배우의 손이, 때로는 인형 머리와 배우의 몸이 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장의 천이 인형의 몸이 되기도 하는 등 형태면에서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꾀한다. 		

구 분	내 용
	<p>○ 오브제</p> <p>-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오브제가 등장한다. 전쟁터에서 터지는 폭탄은 우산으로, 조각나고 파헤쳐진 땅은 조각난 천을 이어붙인 거대한 손모양의 에어바운스로 등장한다. 또한 살아있는 우물은 동그란 거울을 어깨에 맨 배우가 연기한다.</p> <p>-생명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에게 살아있는 땅이나 우물이 허무맹랑할 수도 있으나, 사물에까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뛰어난 감각이 있다면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담아 제작하였다.</p>
기대효과	<p>○ 진정한 회복의 의미</p> <p>-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입는다. 신체적 상처, 정신적 상처. 우리와 함께 하는 온갖 종류의 상처들과 오늘도 함께 하고 있다. 상처는 결핍을 가져온다. 몸과 마음은 결핍으로 인해 무너진다. 손 없는 색시는 상처와 결핍을 통해 회복을 말하려 한다.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곁에 두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극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회복을 꿈꾸어 본다.</p> <p>-손 없는 색시의 원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설화로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손이 없는 색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술무대산의 '손 없는 색시'는 이를 과감하게 비틀고 현대 사회에서의 상실과 치유에 대한 물음을 관객에게 던지고자 한다.</p> <p>○ 어른을 위한 인형극</p> <p>-한 때 그림책은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지금 우리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에 전혀 낯설어 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p> <p>-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인형극을 아이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른을 위한 인형극은 낯설고 어색하다. 관객들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에 마음을 열었듯이 어른을 위한 인형극에도 자리를 내어 줄 것이다.</p> <p>-<손 없는 색시>는 일상에 지친 어른들에게 비주얼 위주의 편안한 연극 한 편이 위로가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어른을 위한 인형극이 되고자 한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에 위안을 받았던 많은 독자들이 이제 어른을 위한 인형극으로 위로를 받을 시간이다.</p> <p>○ 수준 높은 인형연기와 섬세한 무대미술의 향연</p> <p>-손 인형, 하이브리드(배우의 몸의 일부와 결합), 그림자극, 관절인형, 막대인형 등 인형극단 예술무대산이 그 동안 쌓아온 인형제작과 인형연기의 결정체를 풍성하게 선보인다.</p> <p>-무대 천정에 매달린 거대한 도르래와 와이어를 이용하여 소품들이 천정과 바닥을 오가며 등퇴장하는 신선한 무대미술을 연출한다. 오롯이 인력으로 작동하는 섬세하게 설계된 나무 도르래는 디지털과 첨단기술에 손쉽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공연예술계에 아날로그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의 미학을 선보인다.</p> <p>-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피리, 멜로디온 등의 악기연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p>

연극 2 (주)파크컴퍼니 : 고도를 기다리며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파크컴퍼니		
공연명	고도를 기다리며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instagram.com/parkcompany/
실무자명	김수진	E-mail	sogjin627@naver.com
		연락처	(02) 6925-0419
단체소개	<p>공연제작사 파크컴퍼니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p> <p>파크컴퍼니가 선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비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되길 더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파크컴퍼니의 가장 큰 자산은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로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신념을 지키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백상연극상 수상 후보작 선정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9.14.~2021.11.21. 에스24스테이지 3관, 이토록 보통의 2022.01.07.~2022.03.20. 대학로 TOM 1관, 라스트 세션 2023.07.08.~2023.09.10. 대학로 TOM 1관, 라스트 세션 2023.08.29.~2023.11.12. 에스24스테이지 3관, 이토록 보통의 2023.12.19.~2024.02.18.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영상	-		
참여인원	총 29명 (출연진 5명 / 스태프 24명)		
소요시간	총 15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주관객층	30-50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 너비(13m)×높이(7m)×깊이(12m)	- 조명/음향 기본 장비 사용 및 렌탈 - 극장 머리막, 다리막 사용 - 흑사 사용

구 분	내 용
기타 사항	셋업 2일 공연 2일 (2회) 철수 공연 종료 후, 약 2-3시간 소요
기획 및 제작의도	한국 현대 연극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꼽히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구, 박근형의 연극<고도를 기다리며>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이자 한국에서 50년 이상 사랑받은 대표적인 고전 명작이다. 2023년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신구, 박근형 배우에 의해 새롭게 완성된 작품은 포조役に 김학철과 2024년 합류한 럭키役に 조달환, 소년役に 이시목 배우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며 다시 돌아왔다.
내용 및 특징	시놉시스 양상한 나무 아래.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린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한다.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이냐고. 무대 
기대효과	2023년 12월 19일, 서울 국립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강동, 울산, 춘천, 세종, 강릉, 대구, 고양, 화성, 대전 9개 지역의 투어 공연까지 진행했다. 서울 공연 뿐만 아니라 투어 공연까지 전 회차 전석 매진 및 기립박수의 신화를 쓰고 있는 연극<고도를 기다리며>가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돌아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어 일정 및 예산이 맞지 않아 아쉽게 진행하지 못했던 전국 문예회관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며 부산, 부천, 이천이 확정되었고 매진 및 빠른 속도로 예매가 이뤄지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의 지역과도 긴밀히 협의중에 있는데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칭된다면 공연장은 안정적인 예산운영, 단체는 더 많은 지역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관객은 수준 높은 순수 예술(연극)을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경험 삼박자를 고루 충족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연극 3 애기씨어터컴퍼니 : 우정만리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애기씨어터컴퍼니		
공연명	우정만리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yaegitheatre
실무자명	최혜주	E-mail	uniqueblack@naver.com
		연락처	(032) 655-8815
단체소개	<p>[단체목표] 연극은 이야기이고 연극인은 이야기꾼이다.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서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진 정서는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애기씨어터컴퍼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p> <p>[단체소개] 극단 애기씨어터컴퍼니는 1999년 '극단 열무'라는 이름으로 창단하여 현재까지 70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자체 기획 축제인 판타스틱 연극제 개최, 현장역사극, 마당극 공연, 자살예방극, 금연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제3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창작극 '하우하우(작/연출 김예기)'로 대상 및 연출상 수상, 같은 해 울산 본선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단체 대표작으로는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훤(손님)', '우정만리', '아저씨는 외계인', '유성우 내리는 밤에' 등이 있습니다.</p> <p>[단체구성원] 대표/상임연출 : 1인 극작/예술감독 : 1인 극작/조연출 : 1인 기획/사무 : 1인 단원 : 6인</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3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9.~11.20. 소극장 극예술공간 / 경기문화재단 일제잔재청산 및 항일추진민간공모지원사업 선정 ○ 2022.11.3~11.13 대학로 공간 아울 / 극단 정기공연 ○ 2023. 12.14~12.25 대학로 공간 아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예술인지원사업 선정 </p> <p><단체 실적> 2021년 5월 7일 제36회 복사골연극제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1년 7월 14일~18일 제1회 G.T.FESTA 기전연극제 참가작 '언덕을 넘어서 가자' 공간 아울 2021년 9월 4일 부천공연창작소 '아저씨는 외계인'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p>		

구 분	내 용			
	2021년 10월 11일-17일 제3회 말모이연극제 경기도부문 '손님' 후암스테이지 2021년 11월 19일-20일 경기문화재단 2021 문화예술 일제잔재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 공모 지원사업 선정작 '병거지꾼 계동이'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1년 12월 22일-30일 제5회 판타스틱 연극제 개최 / 출품작 '손님' (작품상 수상) 2022년 3월 18일-20일 제60회 정기공연 '안티고네'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2년 5월 6일 - 8월 26일 수원화성 '낭만소풍' 수원 동장대 2022년 7월 13일 경기도 예술회복지원사업 선정작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 2022년 8월 12일 - 8월 14일 수원문화재야행 '조선job史 열전' 수원화성행궁 2022년 9월 7일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초청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2022년 9월 15일 (사)대한간호사협회 협동공연 '간호사 안티고네'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2년 9월 17일, 18일, 24일 제59회 찾아가는 수원화성문화제 '임금님이 나타났다!' 수원시 일원 2022년 10월 22일, 23일 D.FESTA in 서울 '睿(손님)' 동송무대 소극장 2022년 10월 25일 초청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2022년 11월 3일~11월 13일 제65회 정기공연 '병거지꾼 계동이' 대학로 공간 아울 2022년 12월 8일 - 10일 제6회 판타스틱 연극제 개최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2년 12월 19일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초청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 2022년 12월 24일 - 25일 제66회 정기공연 Itabashi Buhne '변신 another reset' TOKYO Subterranean 2023년 9월 8일 초청공연, 제67회 정기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충주 건국대 학교 글로컬캠퍼스 이승진홀 2023년 9월 22일 - 23일 제68회 정기공연 '미리내 삼대'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 (부천 문화재단 공동제작) 2023년 10월 28일 - 29일 경기도 문화의 날, 제69회 정기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소극장 극예술공간 2023년 12월 14일 ~ 25일 제70회 정기공연 / 문예위 원로예술인지원사업선정작 '우정 만리' 대학로 공간아울 2023년 12월 29일 ~ 31일 제71회 정기공연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대학로 공간 아울			
공연영상	- 2023. https://youtu.be/yBXUbSgEpjk - 2022. https://youtu.be/Zl4nTvAXSFs			
참여인원	총 31명 (출연진 20명 / 스태프 11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5세 이상 일반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4m)× 깊이(10m)	* 덧마루 : 사용안함 * 세트 : 자체제작 * 조명 : 3sus, 실링, 세트바텐 1개(세트바텐 없어도 무방)	

구 분	내 용
기타 사항	공연 가능 기간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기획 및 제작의도	<p>'조선, 초기의 우편집배원'이라는 모티브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립운동의 스토리라인을 만나고, 가족의 이야기를 더해 '우편집배원 3대의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긴 흐름의 서사를 가진 극이기에 시공간이 어우러지는 스타일이 더해졌다. 2021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극장 극예술공간에서 초연을 올렸다. 이후 2022년 극단 정기공연으로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상연되었으며,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연한 바 있다. 극단 자체 창작극으로 여러 차례 공연을 올리고 좋은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 선보일 수 있었음에 의미있었던 작업이다.</p> <p>연극 '우정만리'는 전체 3부작으로 기획된 연제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이후 1910년생 '수혁'의 이야기를 기본 골조로 하여 2부를,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3부를 제작하고자 기획 중에 있다.</p>
컨셉 및 주제	<p>1876년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근거로 부산, 인천, 원산 등의 항구를 개방하면서 개항지에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었고, 우정총국 개국 이전부터 자국민의 통신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우편국을 세웠다. 그리하여 1894년에는 우편국이 29개로 늘어났다. 일본은 한국을 강탈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정보 전달 수단인 통신 시설부터 장악했다.</p> <p>이렇듯 전화와 우편은 실제로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침략의 도구를 독립운동의 매개로 사용했다는 상상에서 '우정만리'는 탄생되었다.</p> <p>작품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되었으며, 각각은 독립된 이야기이지만 연결성을 갖는다. '우정만리'는 그 첫 번째 작품이다. 조선, 초기의 병거지꾼이던 아버지 '계동', 그리고 그 아들 '수혁', 수혁의 딸이자 현대의 집배원 '혜주'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겪어온 우리를 돌아보고자 한다.</p>
내용 및 특징	<p>○ 줄거리 :</p> <p>정년퇴직을 앞둔 집배원 '혜주'는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다. 발신인에 할아버지 함자 '김계동', 수신인에 아버지 함자 '김수혁'이 기재된 편지.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p> <p>1930년.</p> <p>20살의 수혁은, 병거지꾼(집배원의 옛 이름)인 계동의 권유로 체신이원양성소에 다니고 있다. 삼엄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양성소에서 쫓겨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간 우편 관리 현장 탐방을 겪으며 수혁은 병거지꾼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p> <p>그러던 어느 날. 계동이 수혁에게 쓴, 장난섞인 암호편지 한 통이 독립군의 그것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순사들에게 끌려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데...</p> <p>○ 공연 특징 : 시대를 관통하는 큰 줄거리는 우편배달부 3대이다. 할아버지 '계동'은 초기의 우편집배원으로 당시 우편집배원들은 두루마기 차림에 커다란 병거지를 쓰고 다녀 '병거지꾼', 또는 '체대감'이라 불렸다.</p> <p>그의 아들 '수혁'은 본래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체신이원양성소를 졸업하여 체신관리인이 된다. 후에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의 딸인 '경화'와 혼인하게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임신한 아내와 생이별 하게 된다. 그 아이는 자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집배원이 되고,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을 앞둔 그녀가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날이 이 공연의 시작이다.</p>

구 분	내 용
	<p>1) 무대 디자인 : 공연은 다원화된 무대를 배경으로 긴 시대의 흐름을 시공간을 교차해가며 펼쳐진다. 극 중 시대 배경은 현재이기도, 1930년대이기도, 1900년대 초반이기도 하다. 공간은 수혁의 집 앞이기도, 학교이기도, 대불호텔이기도, 경무국 취조실이기도 하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시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구역을 분할하고, 높이를 주어 입체감을 더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긴 풍파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팽나무를 세워 극의 의미를 한층 구체화하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2) 음악 : 극의 초반, '계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지를 전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다.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다가 얻어맞거나 욕을 듣는 일은 그의 일상이다. 멍든 얼굴을 하고 약주를 한 잔 마신 계동은 '희망가'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나무를 바라본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는 가사말로 시작되는 '희망가'는 극 중 메인 음악으로 사용되며,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를 돕는다.</p> <p>3) 조명디자인 : 무대디자인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체화할 수 없는 극 구조이기 때문에 조명을 활용하여 공간을 보다 구체화한다. 또한 극의 서사가 섬세하고 길게 이어지는 만큼, 인물의 감정을 따라 세밀하게 디자인하여 작 중 분위기를 형상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p> <p>4) 의상디자인 : 작 중 주요한 시대적 배경은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정도까지의 흐름이다. 패션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다양한 의복이 혼재했던 시기이다.</p> <p>병거지꾼 체신사 '계동'과 체신이원양성소 학생들, 우편관리 현장탐방에 나서는 '수혁'의 의상은 가급적 고증에 가까이 제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극 중 국밥집 장면은 장면의 서사에 어울릴 수 있도록 민복과 투박한 양장을 혼용하였고, 대불호텔의 바 장면은 가수의 드레스와 손님들의 세련된 핏의 양장, 악세사리 등을 활용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독립군 대원들은 하나의 거대한 압박으로 '수혁'을 압도하기에 유사한 스타일의 모자와 자켓, 스카프를 활용하였으며, 극 중 정혁의 연인이자 일본인인 '나오꼬'는 기모노를, 수혁의 연인이자 후에 아내가 되는 '경화'는 차분한 양장차림에 커다란 플로피 햇을 활용했다. 작 중 등장인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과 장면의 특성을 가급적 선명하게 시각화하여 주된 정서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구분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p>■ 작가의도 “격동의 시기를 헤쳐간 우편집배원 3대의 삶과 사랑과 죽음” 1987년에 유진 오닐의 3부작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Mourning Becomes Electra)”를 연출한 적이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배경이다. 나도 6·25전쟁을 배경으로 3부작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만만한 인생”도 그렇고, “우정만리”도 그 중 하나다. 어느 한 가문의 사랑과 결혼, 독립운동과 해방, 6·25전쟁에 따른 강제 이별과 만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의 시대 등 근현대사를 집배원 3대 가족의 삶에 녹여 넣고 싶었다. 극의 형태는 내가 “박무근 일가”에서 쓴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 희곡 서문에 “세 종류의 배우에 대한 설명”이 있다. 삽화 배우, 연출 배우, 자아 배우가 그것이다. 이 연극에도 세 종류의 배우가 등장하는데, 여주인공 혜주와 부친 수혁과 조부 계동이 서사를 설명하는 연출 배우이다. 1951년생 혜주가 30년 근무한 체신부를 그만두는 날이다. 마지막 우편 배달에 나선 혜주는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그 편지는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다.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한 혜주는 기이함을 느끼며, 그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아버지 김수혁의 고향인 인천을 찾아가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서사가 길어서 무대의 시간과 공간을 꽤 복합적이다. 시공간은 등장인물의 사유에 따라 제멋대로 흐른다. 의식의 흐름이다. 따라서 공간은 서사를 연결하기 위해 바빠 움직일 것이다. 행위가 벌어지는 주요 공간은 계동의 집이지만 사건과 행위에 따라 장소는 시시각각 바뀐다. 따라서 계동을 포함하여 주인공들은 자주 방백과 대사를 통해 압축하고 사건을 전환한다.</p>

구 분	내 용
	<p>■ 연출의도</p> <p>“폭풍 속 대한민국 100년을 헤쳐나간 우편배달부 3대의 이야기” 연극 ‘우정만리’는 지난 2021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병거지꾼 계동이’라는 이름으로 극예술공간에서 초연을 올린 애기씨어터컴퍼니의 레퍼토리 창작극이다. 2022년에는 자체 정기공연으로 제작하여 10일간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상연한 바 있다. 총 3부작의 연작으로 기획된 본 작품은 1900년대를 살아나가는 병거지꾼이라 불린 집배원 삼대의 이야기이다. 아버지 ‘계동’,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 체신국 관리인이 된 ‘수혁’, 수혁의 셋째 딸이자 현대의 집배원 ‘혜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p> <p>한 세기를 걸쳐 펼쳐지는 우편역사의 흐름과 그 속의 각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우정만리’는 시공간을 아우를 수 밖에 없다. 본 공연을 통해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의 100년이란 세월과 그 속에 더 드라마틱한 어느 우편가족 삼대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일제치하를 살아간 1대 계동을 중심으로 펼쳐진다.</p> <p>현대의 집배원인 ‘혜주’의 등장을 시작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아버지 ‘수혁’이 체신위원양성소에 다니던 시절과 그를 거쳐 체신국 관리인이 되고, 수혁의 친구 ‘정혁’의 독립운동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 또한 ‘수혁’의 아버지인 ‘계동’이 병거지꾼으로 일생을 살아가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게 되는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한 무대에서 교차되며 펼쳐진다.</p> <p>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이다. 감동이 없는 연극을 상상해보라. 이 어찌 암울하지 않은가? 우정만리는 역사이야기와 이념과 사상 속에 감동이 있는, 감동을 선사하는 인간의 이야기로 남길 원한다.</p> <p>■ 공연 수정 계획</p> <p>연극 ‘우정만리’에는 많은 등장인물과 함께 다양한 스토리라인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시공간이 혼재하기에 가급적 선명한 정서적 서사를 굳건히 이어나가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극에 한층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재연, 삼연을 거치면서 급변하는 상황을 보다 정서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희곡에도 수정에 수정을 가했다. 코러스 배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이 더욱 풍부한 미장센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드라마 서사를 가져가는 배우의 경우, 서사를 큰 선에 합류시킬 수 있도록 감정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p>
기대효과	<p>■ 사업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1편 / 공연 영상 1편 - 연극 ‘우정만리’는 애기씨어터컴퍼니의 자체 창작극으로 2021년 초연 이후 3차례에 걸쳐 재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 단체 우수작품 레퍼토리이다. 특히 초연 및 재연 당시 만석을 기록하였으며 관객 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작품으로, 순수 공연예술로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작품이다. - 기발표되어 관객들의 호감을 얻은 우수작품의 발표를 활성화하여 순수 공연예술 작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우수 작품의 발표를 통해 예술거점을 활성화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티켓 판매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보다 의미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단체의 자립에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순수 공연예술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양질의 공연예술이 확산되고, 이 과정을 거쳐 여러 예술단체가 경쟁시장에서 자생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질적 향상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문화예술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줌으로써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예술이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대로 사회와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

연극 4 극공작소 마방진 : 회란기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극공작소 마방진		
공연명	회란기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abangzen
실무자명	서정완	E-mail	seojw0306@hanmail.net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극공작소 마방진은 2005년 작가 겸 연출가인 고선웅이 창단한 극단입니다.</p> <p>창의적이고 대중적인 레퍼토리 씨어터를 지향하며, 대표작으로는 <낙타상자>, <리어외전>, <화류비련극 홍도>, <라빠르트망>, <칼로막베스>, <들소의 달>, <토끼전> 등이 있습니다.</p> <p>마방진은 숫자의 합이 사방으로 일치하는 정교한 진법을 말합니다. 배우의 감성과 편차에 상관없이 그 전체의 합은 늘 같아야 한다고 믿는 신념을 담았습니다.</p> <p><낙타상자>로 2019한국연극 베스트7을, <화류비련극 홍도>로 2016예술의전당 예술대상, 2015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칼로막베스>로 2012동아연극상을 수상하였습니다.</p> <p>“사실주의적인 열개 속에서 일루전과 환상이 조합되어 추구하는 가치”야말로 연극이 이 시대에 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성과 상업성의 기로에서 그 명분과 해답을 찾아 연극 본연으로 회귀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예술가로서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방진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6.02.~06.03. 금나래아트홀 - 2023.05.12.~05.13. 광산문화예술회관 - 2024.05.20.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아랑홀) - 2023.03.10.~04.02.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2022.11.26.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초청공연 ○ 2022.11.18.~11.19. 용인문예회관 처인홀, 초청공연 ○ 2022.11.14.~11.15.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초청공연 ○ 2022.04.09.~04.1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초청공연 ○ 2022.03.05.~03.20.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자유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구분	내용		
	<단체 실적> 1. 2024.02.16.~02.25.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테디 대디 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 2. 2023.09.08.~09.0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 (쿠쉬나메-끝나지 않는 이야기), ACC아시아 콘텐츠 공연개발사업 선정작 3. 2022.03.10.~04.02.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회란기)		
공연영상	https://youtu.be/CXpXOZ02I8U		
참여인원	총 71명 (출연진 18명 / 스태프 52명)		
소요시간	총 12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신혼부부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3~40대 젊은 부부, 60세 이상 시니어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너비(10m)×높이(7m)×깊이(10m)	무대시설 7개 이상의 세트 전환 배튼 사용 1. 지붕 2. 거울 3. 거울 4. 기둥 5. 지붕 6. 기둥 7. 기둥
	기타 사항		
기획 및 제작의도	1) 고선웅식 사람 사는 이야기,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푸르른 날에> <i>"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청춘들의 에너지와 눈물, 그리고 웃음"</i> 차범석 희곡상 제3회 수상작인 정경진의 희곡을 고선웅이 각색 및 연출. 5·18민주화운동에 휘말린 남녀의 30년 인생역정을 구도(求道)와 다도(茶道)의 정신으로 녹여낸 이야기. 원작의 감동은 더욱 살리면서 고선웅식 촌철살인 유머와 재기발랄함으로 시대의 아픔을 그려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i>"거대한 역사에 휩쓸린 개인, 비극과 희극의 교차로 완성되는 절절함"</i> 중국 원나라의 작가 기군상이 쓴 고전희곡을 고선웅이 각색 및 연출. 2015년 초연부터 2021년까지 매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고선웅 연출 특유의 연극적 표현과 재치 있는 리듬감으로 대의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 본성과 내적 충돌을 섬세하게 그려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회란기> <i>"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이 시대, 가려져도 반드시 드러나는 건 사랑"</i> 중국 원나라의 작가 이잠부가 쓴 원곡을 고선웅이 각색 및 연출. 13세기 당시 중국에서 전해지던 '두 여인의 한 아이 다툼' 이야기. 명쾌한 줄거리에 연극적 놀이성을 불어넣어 비트는 한편 연극이 갖고 있는 고전의 품미를 최대한 살려냄.</p> </div> </div>		

구 분	내 용		
	<p>- 고선웅 연출은 원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비극을 오히려 명량하고 쾌활하게 풀어냄으로써 순식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비극과 희극의 경계를 넘나든다.</p> <p>- 예측 가능한 쉬운 스토리와 친절한 서사를 가진 <회란기> 역시 고선웅 연출다운 아슬한 줄타기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놀이적인 재미와 묵직한 감동이 공존하며 날 것에 가까운 연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회란기>는 1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관객과 함께 울고 웃고 감동을 선사했다.</p> <p>2) 월간 한국연극 '2022 공연 베스트 7' 선정!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이야기 <회란기></p> <p>- <회란기>는 중국 원잡극 초기의 명작으로 꼽히며 "극작계의 호걸"이라는 평가를 받던 13세기 극작가 이잠부의 희곡으로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대표작 '코카서스의 백묵원'의 원작으로도 유명하다. 당대의 사회상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박력 있는 언어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연극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13세기의 오래된 이야기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은 사회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 변함없이 살벌하고 시끄러운 요즘 세상을 비추어 볼 수 있다. <회란기>는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85% 달성을 비롯하여 다수의 매진회차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다.</p>		
<p>내용 및 특징</p>	<p>1) 공연 개요</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td> <td style="width: 60%;"> <p>공 연 명 회란기(灰關記)</p> <p>장 르 연극</p> <p>원 작 이잠부, <회란기(灰關記)></p> <p>극작/연출 고선웅</p> <p>출 연 18명 (On Stage)</p> <p>러닝타임 약 120분 (인터미션 없음)</p> <p>관람연령 14세 이상</p> </td> </tr> </table> <p>2) 공연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원형의 맛을 현대 공연장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와 조명 장치를 최소화하였다. 단 8개의 원형 기둥과 벽채로 둘러싸인 무대는 집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상부에 매달린 '거울'이 객석을 향하는데 이는 관객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 700년 전 이야기임에도 굳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현대적인 컨셉의 의상은 이 이야기가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동시대성을 강조한다. - 수량자와 앵무새는 인형으로 등장하는데 배우가 인형조작자로 무대 위에 함께 등장한다. 인형과 하나가 되어 연기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연극적 재미를 준다. 		<p>공 연 명 회란기(灰關記)</p> <p>장 르 연극</p> <p>원 작 이잠부, <회란기(灰關記)></p> <p>극작/연출 고선웅</p> <p>출 연 18명 (On Stage)</p> <p>러닝타임 약 120분 (인터미션 없음)</p> <p>관람연령 14세 이상</p>
	<p>공 연 명 회란기(灰關記)</p> <p>장 르 연극</p> <p>원 작 이잠부, <회란기(灰關記)></p> <p>극작/연출 고선웅</p> <p>출 연 18명 (On Stage)</p> <p>러닝타임 약 120분 (인터미션 없음)</p> <p>관람연령 14세 이상</p>		

구 분	내 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p>○ 명쾌한 줄거리, 연극적 놀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줄거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관객들은 높은 몰입도로 극을 따라가게 된다. - 18명의 배우들은 무대를 가득 채우고, 양식화된 화술과 몸짓으로 해학적인 재미를 준다. - 연극적 약속을 활용한 위트 있는 장면연출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p>3) 시놉시스 아이를 원 안에 세워라. 두 여인은 아이를 석회 원 밖으로 끌어당겨라!</p> <p>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생으로 살던 장해당은 동네 갑부 마원외와 진심으로 사랑하여 첩으로 들어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마부인이 남편을 독살하고 장해당에게 뒤집어씌운다. 더군다나 마부인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장해당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동네 산파와 이웃까지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다. 장해당과 그 오라비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포청천은 바닥에 석회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아이를 그 안에 세운다.</p> <p>과연 어미는 누구인가.</p>

구 분	내 용
	<p>4) 공연사진</p>  <p>4] 공연 수정 계획</p> <p>1) 구성의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연은 해당이가 가족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던 시절부터 마원외를 만나 수량을 낳고, 마부인과 다투다가 결국 포청천의 판결에 누명을 벗기까지의 기나긴 서사를 다루고 있다. 앵무새와 아들 수량을 제외하고 해당이가 만났다 헤어지는 인물만 총 16명이었는데, 수많은 등장인물에도 극을 관통하는 쉬운 줄거리와 스피드 있는 전개로 높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 다만 공연 당시 해당이가 만나는 인물이 장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퇴장함에 따라 중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연에서는 빠른 템포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아들을 되찾으려는 해당이의 고군분투 속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보강하여 전체적으로 공연의 구성과 내용이 더욱 탄탄해지도록 수정한다. <p>2) 드라마의 측면</p> <p>대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때로는 의상을 바꾸어 새로운 역할로 극에 등장하면서도 관객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건 하나같이 독특한 인물들의 생김새와 말투, 캐릭터 덕분이었다. - 그 속에서 부연설명으로 느껴지는 장면이 일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관객이 관극 도중 지루함을 느끼면 몰입도가 저하될 수 있기에 인물 간의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을 좀 더 밀도 있게 수정하려 한다. - 예를 들어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등장했던 술집주인 장면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극의 텐션을 유지한다거나, 해당이와 수량의 관계성을 강조하여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강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특색있는 등장 인물들이 캐릭터로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성격과 변화가 명확하게 느껴지도록 촘촘히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p>3) 무드의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란기>는 권선징악의 구조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보편적 진리를 따르는 통쾌한 극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는 해당이의 고통과 눈물에 공감하거나, 말만 번지르르한 장림과 바보 같은 조영사의 행동에 코웃음을 치거나, 계락을 꾸미는 마부인의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치를 떠는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 그러나 슬픈 것을 마냥 슬프게만 표현하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처럼 험난한 사건들 앞에서도 심지 굳게 주먹을 쥐는 해당이와 함께 하고 끝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섬세한 디테일을 추가한다. 예로 다소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매 맞는 장면을 위해 공연 시작 전 리허설을 하여 관객이 큰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표현한다. 관객이 진을 빼고 오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해당이가 기쁠 땐 웃고 힘들 땐 함께 주먹 불끈 쥐며 응원할 수 있도록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공연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u>연극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고전 연극으로 거듭난다.</u> <p>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무대 운영을 위해 보수를 진행하되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들은 최대한 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 상부 거울에 시트지를 부착해 빛을 반사하였으나 셋업, 철수 과정에서 시트지가 주름지고 빛이 흩어져 거울의 연극적 효과를 약화시켰다. 무거운 세트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크릴 거울로 제작, 무게를 줄이고 파손을 예방한다. <p>음악 / 음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당시 툰이 튀고 음질이 고르지 못한 음악이 있어 일부 장면의 분위기 형성에 아쉬움이 있었다. 작품 분위기에 맞추어 중심 컨셉을 잡고 장면별로 세분화하여 당시 시대와 극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음악을 새롭게 작곡한다. - 마원외와 해당의 첫 만남 장면에 나오는 코믹한 음향, 장림이 집안 물건을 부수는 소리 등의 효과음 또한 새로 제작하여 풍성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p>의상 / 소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디자이너를 섭외하여 역할과 더 어우러지고 자유로운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의상 컨셉을 재정리한다. - 몽둥이, 칼, 죽비 등 공연 중 파손 흔적이 있고 향후 파손의 우려가 있는 소품들을 재정비한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보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몽둥이를 칠하는 물감으로 비건 물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u>문화예술 향유 기회 마련</u> -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수요 증가에 응답, 공연예술 문화 조성 - 자녀들과 다양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는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u>효과적인 모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u> - 단체 위주의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u>시니어층의 활발한 유입</u> - 공연관람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노인들의 <u>사회활동 참여 촉진</u>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u>소속감 증대</u> - 대학로 위주의 공연예술 시장에서 소외된 <u>지역별 공연환경의 고른 성장</u> 및 장기적인 시장 확대에 기여 - 문화예술향유가 턱없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예술적 경험을 확장시키고 <u>향후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계속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u>이 된다.

연극 5 극단 골목길 : 경숙이, 경숙아버지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극단 골목길		
공연명	경숙이, 경숙아버지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golmokil.modoo.at/
실무자명	안소영	E-mail	golmkilllove@hanmail.net
		연락처	(02) 6012-2845
단체소개	<p>2003년 창단되어 40여 편의 창작 신작, 20여 편의 번역극 등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으며, 국내외 지역초청공연은 물론 주요 연극상 수상 등 관객과 평단에 높은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공연제작극단이라 할 수 있다.</p> <p>강지은, 이봉련, 고수희, 황영희, 엄효섭, 윤제문, 박해일 등 수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 왔으며, 배우, 연출, 작가 등 신진인력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활동 가능한 연극인의 발견을 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극작가이며 연출가인 박근형을 주축으로 끊임 없는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p> <p>골목길 안에서의 편안함을 그리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감정 한구석을 흔드는 연극을 하고픈 극단 골목길. 골목길은 낯설음과는 거리가 멀다. 푸근함이고 따뜻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골목은 생명인 것이다. 골목이란 공간에서 모든 것을 배우며 자란 우리의 향수란 골목 틈새에서의 추억들에 있다.</p> <p>잃어버린 정서, 서민의 삶, 야전성, 선술집, 어린시절 동심... 세계적 건축가나 환경론자들이 도시의 생명은 골목이라고 서슴없이 외치는 이유도 어쩌면 뒷골목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회귀본능에 빠져있는 그리움의 인간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길의 용도만이 아닌,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향수와 그리움과 애정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선사하고 싶은 극단 골목길. 길 한복판에서의 이유 모를 헛헛함 보다는 골목길 안에서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또는 아직 느껴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 한구석을 흔드는 연극을 하고픈 극단 골목길.</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전체)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숙이, 경숙아버지 -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0.07. 동해문화예술회관(4,294만원) 2023.09.29. 대구 달서아트센터(3,914만원) 2023.08.18. 속초문화예술회관(3,914만원)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0.26.~10.29. 국립정동극장 세실 / 이장 2023.06.23.~07.02. 예술공간 혜화 / 처음처럼:사랑은 살인이 아니다 <p>수상실적 : 2023 제17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 - 박근형 '이장'</p>		
공연영상	https://youtu.be/bGpjtPxXjfg https://youtu.be/Sy7lbo73-20 https://youtu.be/AJm2CwyPTug https://youtu.be/4DrBanNEB1g		

구 분	내 용		
참여인원	총 18명 (출연진 08명 / 스태프 10명)		
소요시간	총 10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초등학생 이상 전 연령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현지 극장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가능	현지 극장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가능
기획 및 제작의도	<p>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연극의 산실인 극단 골목길의 대표작 '경숙이, 경숙아버지'를 새롭게 선보인다.</p> <p>2006년 초연 당시 동아연극상(작품상, 희곡상, 여자연기상, 신인여자연기상),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희곡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best 3 등 모든 상을 휩쓴 최고의 화제작이며 초연 이후 전국 투어 및 해외공연 등 40여 차례 초청공연을 이어오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최고의 수작을 통해 지역관객들의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고 지역공연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p>		
내용 및 특징	<p>1) 공연 내용 및 특징</p> <p>한국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한 본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며 울고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수작이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세상을 방랑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면서도 대립하고, 이해하면서도 갈등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흥겨우면서도 눈물 나는, 눈물 나면서도 웃음 나는,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공연이다.</p> <p>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에는 현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가족이 등장하여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길에 나선 경숙아베, 비록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사랑받는 것이 평생소원인 경숙어메, 아베가 세상에서 제일 싫지만 또 그만큼 아베가 너무나 그리운 경숙이, 그리고 경숙어메를 사랑하는 껍껍, 아베의 애인 자야, 인생의 장단을 두드리라는 할배 등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던 가족의 모습과 인생이 그려진다.</p> <p>당시 시대상으로 비춰지는 어쩔수 없는 슬픈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지만 맛깔 나는 사투리와 엉뚱한 상황 덕분에 웃을 수 밖에 없는, 웃픈 연극이 바로 <경숙이, 경숙아버지>다.</p> <p>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는 바로 경숙아베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음속이 허전한 현대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는 존재이다. 격변하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들. 이 시대의 아버지 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p> <p>2) 지역 맞춤 수정 계획 등</p> <p>본 공연은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등 여러 무대에서 공연되어 왔다. 극장의 컨디션에 맞춰 밀도있는 조명과 무대디자인을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선보일 것이다. 초연 당시 배우들과 스태프 위주로 팀을 꾸리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득이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새롭게 재편성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근형과 극단 골목길의 웰메이드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위 공연의 공연권은 모두 극단 골목길에 있음.)</p>		

구 분	내 용
	<p>3) 부대 프로그램 : 초청지역극장과 협의 후 조정가능</p> <p>※ 관객과의 대화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공연일정 중 1회(공연종료 후) - 장소 : 초청지역극장 - 목적 :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관객 개발 - 대상 : 공연관람객 - 진행 : 배우 및 연출 등 - 내용 : 공연 종료 후, 배우 및 연출과의 소통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 - 기대효과 : 공연이외 다양한 경험 선사, 잠재관객 개발 및 관심도 증가 <p>※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골목길 자체 조사 실시 - 공연 종료 후 관람관객들에게 서면리서치를 통한 향후 지속발전 방향 수립
<p>기대효과</p>	<p>극단 골목길은 지난 20여년간 약 40여편의 창작극, 약 20여편의 번역극 등을 제작하고 새로운 배우를 배출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작품, 좋은 배우, 좋은 극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연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이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p> <p>연극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 새로운 유통 활로를 지역극장과 함께 모색하고 확보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p>2006년 초연이후 국내외 40여차례 초청 및 공동제작공연을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던 노하우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재공연 문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p> <p>아울러 함께 협력 했던 지역극장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확대유통 형태로 발전 해왔다.</p> <p>단발성 대관공연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경기로 위로를 기다리는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지는 지속적인 문화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제작여건을 정착시켜 우수한 작품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하는 문화의식 향유의 큰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p>

연극 6 극단 죽도록달린다 : <호야:好夜>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극단 죽도록달린다		
공연명	<호야:好夜>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
실무자명	한아름	E-mail	jukdalin@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극단 <죽도록달린다>는 2004년 이름이 의미하듯 멈춰있지 않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열심히 경주하는 예술가의 창작 본능을 모토로 연극 <죽도록달린다>를 출발로 연극 <왕세자실종사건><릴-레-이><청춘,18대1> <호야:好夜><토너먼트> 등 라이브 연주를 동반한 작품들로 연극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올해의예술상><PAF연출상> <히서연극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p> <p>극단 <죽도록달린다>는 2010년 이후, 음악극과 뮤지컬 분야로 활동성을 넓히며 뮤지컬<왕세자실종사건><주홍글씨><청춘,18대1><외술><Toward_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 음악극<휘인><더 코러스;오이디푸스><상원_지워지지 않는 기억> 등의 작품을 통해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 베스트창작뮤지컬 대상/연출상> <뮤지컬어워즈 창작뮤지컬상><딤프 어워즈 심사위원상/아성크리에이터상>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다수의 작품이 노미네이트 되며 창작 뮤지컬과 음악극 부문에서도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p> <p>극단 <죽도록달린다>는 '시를 읊고 노래하고 춤추는 연극의 원형'으로 돌아가 연극, 음악극,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10-2011 LG 아트센터, 2022-2023/2024-2025 관악아트홀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되며 더욱 내실 있는 중견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p> <p>극단<죽도록달린다>는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창작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예술실험의 장(場)이자 젊은 배우들의 든든한 산실이 되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우리 창작공연의 힘을 알리고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2.04. 한문연 방방곡곡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_광산문화예술회관 ○ 2018.08.31.~09.02 성남아트센터 기획공연 만원의 행복 진행 ○ 2010.12.01. 한문연 방방곡곡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_광주문화예술회관 ○ 2010.09.18. 한문연 방방곡곡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_나주문화예술회관 ○ 2010.09.09. 한문연 방방곡곡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_의성문예회관 ○ 2010.01.23~31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선정_남산예술센터 ○ 2008.11.4.~11.30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_대학로극장 ○ 제 6회 밀양여름공연축제 _ 대상 /남,여 연기상/ 음악기술상 수상 		

구 분	내 용		
	<p><단체 실적></p> <p>☞ 국내 공연 발표 최근 3년간('21년~'23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0.27.~11.03. 뮤지컬 <왕세자실종사건>_구리/여수/거창/창원 2023. 4.28.~30 <오이디푸스> 관악아트홀 (상주단체 선정 공연) 2023. 7.28~29 <상원>_광산문예회관(23. 방방곡곡 선정작) 7.21~22 <상원>_관악아트홀 (자체제작) 2022.12.23.~25 뮤지컬 <왕세자실종사건>_관악아트홀 (상주단체 선정 공연) 2022.10.14. <연애몽>_밀양강야외무대(2022 대한민국 문화의달 초청작) 2022.10.5~9 <무령대왕> 2022. 백제문화제 초청 제작공연 2022.06.19. <군마전_적토편>_아르코예술극장스튜디오 다락 (창작산실 연극부문 쇼케이스 선정작) 2021.6.26.~6.27 <TOWARD>_아양아트센터 대극장 (DIMF 공식초청작) <p>☞ 해외공연 및 교류 사항 최근 3년간('21년~'23년)</p> <p>2023 대만 뉴 타이페이 음악극 축제 공식초청작 / <오이디푸스> 2023 대만 가오슝 국가 극원 오페라극장, 자이현 극장 대극장 / 음악극 <휘인(徽因)> (극단 죽도록달린다/Quanta Art Foundation 합작) 2022 대만 타이베이 중정 국가희극원, 오페라극장 / 음악극 <휘인(徽因)> (극단 죽도록달린다/Quanta Art Foundation 합작) 2021 대만 타이중 국가 극원 (Taizhong National Theater), 오페라극장 / 음악극 <휘인(徽因)> (극단 죽도록달린다/Quanta Art Foundation 합작, 타이중국가극원 초청 공연)</p>		
공연영상	https://youtu.be/c_B6D6Rc4vc 유튜브/공연 풀영상 (링크를 통한 제한적 공개)		
참여인원	총 33명 (출연진 13명 / 스태프 20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6m)× 깊이(8m) - 변경가능	필요장치배튼 - 3 필요조명배튼 - 4 덧마루 필요없음
기획 및 제작의도	<p>연극 <호야:好夜>는 뮤지컬 '영웅', '왕세자실종사건'등의 작품으로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한아름 작가와 '리차드 3세', '오이디푸스' 등으로 여전한 연출력을 입증한 서재형 연출 콤비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가슴 아픈 연정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p> <p>연극 <호야:好夜>는 미니멀하고 세련된 무대와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 운용, 배우들의 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멜로 사극을 넘어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리워했던 궁궐 여인들의 외침과 그 안의 연대를 주제로 삼으며 사극의 지평을 넓혔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 6회 밀양여름공연축제 대상/남,여 연기상/음악기술상을 수상하였고,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을 거쳐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한문연 방방곡곡 선정작으로 광산 및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원예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정화여고 등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무료 스쿨 라이선스로) 공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p>		

구 분	내 용
	<p>이에 극단 죽도륙달린다는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도 유효한 사람 사이의 정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지역 관객들과 공감의 시간을 나누고, 연극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고자 본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p>
<p>컨셉 및 주제</p>	<p>'사람답게 산다는 것, 나의 삶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정을 나누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p> <p>연극 <호야:好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궁궐 여성들을 기존 사극처럼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여자들이 아닌 존엄성과 주체 의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중전과 후궁 그리고 궁녀까지, 궁궐의 모든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씌워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의한 상황에 저항하고, 신분 상관없이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맞섭니다. 자신의 존엄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인물들을 통해 '사람 간의 정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연극 <호야:好夜>가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p>
<p>내용 및 특징</p>	<p>1) '지문과 해설까지 보여주는 듣고 보는 희곡!'</p> <p>연극 <호야:好夜>는 배우들이 희곡 속 대사 뿐 아니라 지문과 해설까지 읽고 연기함으로써 배역 내면의 이야기나 배우들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동작이나 감정 등을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공연 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선한 시도라는 평과 함께 극적 분위기와 몰입도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객들은 희곡에만 있던 지문과 해설을 배우의 연기를 통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읽는 희곡을 넘어 보는 희곡의 재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p> <p>2) '배우들이 만드는 보이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음악과 음향!'</p> <p>연극 <호야:好夜>의 배우들은 공연 시간 내내 퇴장 없이 무대 가장자리에 둘러앉아 작품 전체의 다양한 음향 악사가 되어 바람, 비, 부엉이, 풀벌레 소리 등 자연을 표현하는 음향을 직접 만들어 내고, 다양한 악기의 연주함으로써 귀로만 듣던 음향과 음악을 시각화하며 연극적 상상을 자극하고 끊임없는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합니다.</p> <p>3)즐거리</p> <p>조용한 궁궐... 중전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며, 대비와 그의 조카이자 후궁인 숙원은 두 아이를 사산하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없는 중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왕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는 상소문과 대비의 섭정 그리고 후계자가 없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한편, 중전의 오라비인 한자겸과 오래전부터 그가 연모하던 왕의 여자 귀인 어씨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는 대비의 음모에 의해 궁궐로 퍼져나가 역모까지 연루되어 한자겸이 자결하는 사태로까지 번진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문을 당하는 귀인 어씨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에게 성은을 입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이 밝혀지고, 한자겸이 자결한 날 밤, 혹독한 문초 끝에 귀인 어씨가 숨을 거두자 궁궐의 여자들은 임금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며 사는 것에 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p>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4) 공연수정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 수정 : 현재는 여성과 약자, '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초, 재연 당시 망설였던 소재와 내용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 음악 수정 : 위의 이유로 대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음악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며, 전문 타악 연주자 섭외로 음악의 풍성함과 전문성을 키우고자 합니다. - 연출 수정 : 요즈음 관객의 니즈와 양상을 고려해 배우들의 동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추가하고자 하며, 배우들의 허밍으로 표현해왔던 일부를 가사화 해 관객의 호응와 음악적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p>1. 극단 죽도룩달린다는 19년 창제작의 노하우로 지역 극장/재단과의 추가 협력의 계기 마련!</p> <p>극단 죽도룩달린다는 지난 19년간 창작극만을 제작한 창작 전문 단체로서 이번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연장과의 신뢰를 쌓아 이후에도 공연 유통을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경쟁력을 갖춰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지역 극장의 자체 콘텐츠 제작(지역의 역사와 스토리에 맞는 브랜드 공연)등의 사업을 함께 출발하는 진취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p> <p>2. 희곡의 이론과 실재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p> <p>현재 국어 교과서에는 '다양한 문학의 갈래'라는 목록에 '희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희곡 읽기를 통해 희곡이란 장르의 이론을 배우지만, 그것이 실제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되는지 실재를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연극 <호야:好夜>는 대사 뿐만 아니라, 행동/감정 지문, 해설, 음악과 음향, 배우의 움직임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양식의 공연으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과 연극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에게 희곡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p> <p>3. 부대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단체관람 유도과 공연장 활성화</p> <p>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공연이 학습과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된다는 이유로 학생 단관이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극 <호야:好夜>는 '읽는 희곡을 넘어 보이는 희곡'이라는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확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의 관객인 지역의 학생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데 충분한 명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극장과 재단이 원한다면 공연 기간 중 극단의 상임작가로 있는 한아름 작가의 '해설이 있는 희곡'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이번 공연이 지역 공연장의 활성화와 학생들, 시민들의 예술 경험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p> <p>4. 공연을 업그레이드하여 단체의 레퍼토리와 대표 연극으로의 발돋움.</p> <p>평단과 관객에게 검증받은 연극 <호야:好夜>를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여 지역 공연장에 선보임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단체의 대표 레퍼토리이자 공연계의 대표 연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극 <호야:好夜>가 다시 한번 대학로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p> <p>5. 가볍고 소비적인 콘텐츠를 넘어 철학적 사유를 할 뜻깊은 기회</p> <p>가볍고 소비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본 작품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층들을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감이 살아있는 공연장으로 불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슴 깊이 있는 감성을 깨우고, 철학적 사유를 할 뜻깊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사극 속에 여전히 왜곡된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바로잡아 균형 있는 성 인지 감수성과 인권 등에 대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뜻깊은 기회가 되어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사유할 수 있는 순수 공연 콘텐츠가 더 관객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p>

연극 7 사단법인 극단현장 :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사단법인 극단현장													
공연명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단체 소재지	경남	홈페이지	https://www.ihyunjang.com/hj/main/index											
실무자명	김서현	E-mail	ihyunjang@daum.net											
		연락처	(055) 746-7411											
단체소개	<p>50년 역사의 전문예술법인 극단현장</p> <p>1974년 설립된 (사)극단 현장은 '일상의 경험을 무대 위로 가져가고 무대 위에서의 깨달음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순환'을 통해 우리 삶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런 삶 속에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p> <p>미래의 잠재 예술가이자 관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2000년부터 아동극을 제작했습니다. 마임극, 대사 연극, 음악극 등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역 문화예술축제의 기획 및 주제공연 제작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p> <p>200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고 2008년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0년부터 복합문화예술센터 '예술중심 현장'을 운영하는 등 극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p>													
	<p>연 혁</p> <table border="1"> <tr> <td>1974년</td> <td>창단</td> </tr> <tr> <td>1981년</td> <td>문예진흥원 공연단체 등록</td> </tr> <tr> <td>2005년</td> <td>사단법인 등록</td> </tr> <tr> <td>2007년</td> <td>전용소극장 '현장아트홀' 개관</td> </tr> <tr> <td>2009년</td> <td>전문예술법인 지정</td> </tr> <tr> <td>2020년</td> <td>복합문화예술 공간 '예술중심 현장' 개관</td> </tr> </table> <p>창단공연 '출발' 등 800여회, 고능석 대표 외 회원 44명, 상근단원 14명</p>			1974년	창단	1981년	문예진흥원 공연단체 등록	2005년	사단법인 등록	2007년	전용소극장 '현장아트홀' 개관	2009년	전문예술법인 지정	2020년
1974년	창단													
1981년	문예진흥원 공연단체 등록													
2005년	사단법인 등록													
2007년	전용소극장 '현장아트홀' 개관													
2009년	전문예술법인 지정													
2020년	복합문화예술 공간 '예술중심 현장' 개관													
	<p>대표작</p> <p>'출발'(1974), '상방'(1984), '불의 가면'(1997), 마임극 '광대들'(2010-13), 고물놀이극 '쿵쿵쿵 고물놀이터'(2008-16), '카툰마임쇼'(2014-), '책책책'(2013-19, 23), 뮤지컬 '유등'(2011-13),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2002-), '팔베개의 노래'(2014-16), '시집가는 날'(2015), 움직이는 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2014-15), '강목발이'(2016-18), '길 위에서'(2017-21), '정크, 클라운'(2017-), '여가수 진수린'(2012-19), '섬'(2017-23), '함양의 여름'(2018), '타이피스트'(2018),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2019-23), 전기수 이야기 '나는 이렇게 들었다'(2020-22), '반추'(2021), '3분의 미학'(2022), '개는 물지 않는다'(2023) 등 다수</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1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2주, 3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3주, 4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2주, 4주)													

구분	내용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4.01.-12.31.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 협력 지원사업 선정 (지원금 1억3천5백만 원) ○ 2022.12.07.-12.09. 경남중소기업예술지원매칭펀드 (주)참신한건설 선정 (지원금 2천7백만 원) ○ 2021.07.22.-07.25. 경남중소기업예술지원매칭펀드 (주)참신한건설 선정 (지원금 3천만 원)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04.-12. <정크, 클라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춘천마임축제 개막공연/ 대학로거리공연축제 /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국내외 온오프라인 상영 2. 2021.07.16.-07.25. 인도 전역 영상 송출, <정크, 클라운>/인도 인코센터 초청 3. 2021.10.14.-10.15.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수무바다 흰고무래>/진주브랜드작품창작공모 당선작 4. 2021.12. <정크, 클라운> /중국상하이 <석석문화전파유한공사>에 저작권 판매 계약 5. 2022.07.10.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나는 이렇게 들었다>/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밀양 6. 2022.10.15.-10.16. 노원어린이극장, <정크, 클라운>/노원문화재단 초청 7. 2022.06.-11. 청양가족센터 청양복지타운, 계룡시 두마초, 흥성가족센터, <카툰마임쇼>/찾아가는공연락락 8. 2022.11.1.-11.13. 영상송출, <정크, 클라운>/필리핀 더레드커튼 국제페스티벌 9. 2023.03.24. 3.15아트센터 대극장, <반추>/제41회 경남연극제 창원 10. 2023.05.-08. 진주성 의암일원,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11. 2023.09.01.-02, 07-09, 15-17, 아트팩토리.봄, 소극장 공터다, 나온씨어터,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12. 2023.10.-11. <카툰마임쇼>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3. 2023.11.14.-11.16. 민송아트홀, <섬>/제23회 월2인극페스티벌 14. 2023.12.06.-12.08. 현장아트홀, <3분의 미학>/경남중소기업예술지원매칭펀드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youtu.be/MYVSOOf2ykpo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유튜브 풀영상(2023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서울 공연) ○ https://youtu.be/kTXKU0qbEF0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유튜브 풀영상(2022 진주시민을 위한 얼씨구 가족연극잔치) 		
참여인원	총 14명 (출연진 7명 / 스태프 7명)		
소요시간	총 65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2세 이상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3m)×깊이(8m)	조명 바텐 사용 안 함, 덧마루 사용 안 함
기획 및 제작의도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착안하여 창작된 연극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은 우리의 전통 공연 양식인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 토착민과 이방인과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유쾌한 서사와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구 분	내 용
	<p>“중국에 가모 장강(長江)이라는 긴 강이 있습니다. 그 큰 중국서도 제일로 큰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이 처음부터 한 줄기로 흘렀겠습니까? 굽이굽이 흐르다 보니 시냇물도 흘러들고 샅강도 합쳐지고 그랬겠지요? 그러다가 중경이라는 데서 엄청시리 큰 강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개의 강줄기가 서로 섞이지 않고 250리를 나란히 흐른답니다. 우짜 아느냐고요? 두 강줄기의 물 색깔이 달라서 그게 눈으로 보인답니다. 하나는 검푸른 빛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톳빛인데 서로 흘러온 땅이 달라서 물 색깔도 그렇게 다른 기랍니다. 다른 건 물 색깔만이 아니고 그동안 흐르는 물의 속도랑 온도가 다르다 보니 서로 섞이지 못하고 나뉘어서 흐르는 기지에, 그렇게 250리를 따로 흐르던 강줄기도 결국에는 하나로 뒤엉켜 장강이 돼서 바다에 닿습니다. 말없이 흐르기만 하는 강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뭉치고 섞이는데 사람들은 와 문 그랄까요?”</p> <p style="text-align: right;">- 극 중 주모의 대사 중</p> <p>우리 시대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이방인, 이주민들과 그 맞은편에서 인상 찡그리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들려주는 무거운 주제를 함축하는 이 대사처럼,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개인주의화되면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혐오와 갈등, 폭력의 현재를 잔잔하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환기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세대와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유난히 도드라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로 화합과 다양성의 수용에 관해 이야기한다.</p> <p><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은 2023년 공연유통 협력 지원사업(단년간)에 선정되어 춘천, 구미, 서울 순회공연을 통해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 공연계와 평단, 그리고 관객들에게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p> <p>- 지역 소멸 단계에 진입한 지역민을 위한 공연</p> <p>전국 83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귀농 귀촌 인구 등의 증가로 원주민과 토착민의 지역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많다.</p> <p><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은 원주민과 토착민들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서로 간의 이해를 향상시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한 공연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거주민들은 연령대가 높아 마당극처럼 대중적 형식의 공연에 대한 친화력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 마당극의 장점을 활용한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공연은 그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원주민과 유입 인구 사이의 맞춤형 공연이라 할 수 있다.</p>
컨셉 및 주제	-
내용 및 특징	<p>(1) 작품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종코미디 연극 :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서 착안해 창작, 마당극 형식 활용 - 중소공연장(800석 미만) 객석 규모에 적합 (관객참여 장면 1회 있음) - 소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날 하루 : 오전 9시 - 오후 10시 • 공연 당일 : 분장(3시간), 리허설(2시간), 공연(65분), 철수(2시간) <p>(2) 줄거리</p> <p>가상의 마을 뱅이술 마을에 서일록이 들어와서 살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텃세가 매우 심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땅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장사를 하려 해도 그의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서일록은 할 수 없이 배굶아 가면서 모은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돈벌레라고 손가락질한다.</p> <p>한편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산까지 다 털어먹은 뱅이술 마을의 한량 박산이는 배꽃마을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기 위한 예물을 마련할 요량으로 거상인 친구 안돈희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 마침 세계 도처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어 현금이 없었던 안돈희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 서일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p>

구 분	내 용																		
	<p>구한다. 평소 자신을 업신여겼던 안돈희에게 양금이 깊었던 서일록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살을 한 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p> <p>(3) 작품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12세 이상)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력있는 토종코미디 연극! - 관객의 극 중 무대 침입! 관객과의 호흡으로 극을 완성한다! - 열린 결말과 다중적 메시지는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무대는 일상이 된다. <p>본 작품은 마당극의 열린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배우들의 대사과 움직임이 관객석으로 활짝 열려있는 작품이다. 2023년 공연유통 협력 지원사업(단년간)에 선정되어 음악과 무대를 재창작하는 등 작품의 전반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관객과의 접근성은 더 높아졌다.</p> <p>(4) 공연 연보</p> <table border="1" data-bbox="406 813 1369 1227"> <tr> <td>2023.09.01.-17</td> <td>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 / 춘천 아트팩토리.봄(3회+오픈리허설 1회), 구미 공터다(3회), 서울 나온씨어터(4회) 순회공연</td> </tr> <tr> <td>2022.12.07.-09</td> <td>2022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td> </tr> <tr> <td>2021.07.22.-07.25</td> <td>2021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td> </tr> <tr> <td>2021.04.26</td> <td>진주시민을 위한 열씨구 가족연극잔치(논개제)/현장아트홀</td> </tr> <tr> <td>2020.12.16</td> <td>진주연극협회 우수예술단체 초청 공연</td> </tr> <tr> <td>2020.5.-12</td> <td>전통문화예술공연단체 지원사업 열씨구~ 가족 연극잔치! 현장아트홀 (2회공연)</td> </tr> <tr> <td>2019.12.26-27</td> <td>진주중학교 초청공연/현장아트홀</td> </tr> <tr> <td>2019.12.24-28</td> <td>2019 내아트프렌즈 지원사업/현장아트홀</td> </tr> <tr> <td>2019.08.22-08.23</td> <td>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산청군문예회관 대공연장</td> </tr> </table> <p>(5) 공연 사진</p> <div data-bbox="379 1361 1385 2078"> </div>	2023.09.01.-17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 / 춘천 아트팩토리.봄(3회+오픈리허설 1회), 구미 공터다(3회), 서울 나온씨어터(4회) 순회공연	2022.12.07.-09	2022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	2021.07.22.-07.25	2021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	2021.04.26	진주시민을 위한 열씨구 가족연극잔치(논개제)/현장아트홀	2020.12.16	진주연극협회 우수예술단체 초청 공연	2020.5.-12	전통문화예술공연단체 지원사업 열씨구~ 가족 연극잔치! 현장아트홀 (2회공연)	2019.12.26-27	진주중학교 초청공연/현장아트홀	2019.12.24-28	2019 내아트프렌즈 지원사업/현장아트홀	2019.08.22-08.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산청군문예회관 대공연장
2023.09.01.-17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 / 춘천 아트팩토리.봄(3회+오픈리허설 1회), 구미 공터다(3회), 서울 나온씨어터(4회) 순회공연																		
2022.12.07.-09	2022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																		
2021.07.22.-07.25	2021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현장아트홀																		
2021.04.26	진주시민을 위한 열씨구 가족연극잔치(논개제)/현장아트홀																		
2020.12.16	진주연극협회 우수예술단체 초청 공연																		
2020.5.-12	전통문화예술공연단체 지원사업 열씨구~ 가족 연극잔치! 현장아트홀 (2회공연)																		
2019.12.26-27	진주중학교 초청공연/현장아트홀																		
2019.12.24-28	2019 내아트프렌즈 지원사업/현장아트홀																		
2019.08.22-08.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산청군문예회관 대공연장																		

구 분	내 용
	<p>3) 공연 수정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품에 나오는 일부 지역명을 해당 지역의 친근한 오지 마을로 바꾼다. 다만 작품의 원래 의도가 가상의 마을을 설정하여 다양성을 수용하는 작품인 만큼 작품의 전체적 수정은 불가하다. -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으로 지역민과의 친화력을 높인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카드 뉴스 제작 등으로 홍보 협조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sns 카드 뉴스 제작 협조 등으로 지역과 극단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고하고 공연예술 생태계 다양성에 이바지한다. - 특히 지역에서 쉬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며 지역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연극 8 극단 전망 :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극단 전망		
공연명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
실무자명	강영호	E-mail	kainte@naver.com
		연락처	(02) 548 - 8807
단체소개	극단 전망은 세상에 대한 대범한 시각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극형식과 무대언어를 탐구해 나가는 연극단체입니다.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신청 공연 실적> ○ 2023.06.28.~07.09. 자체공연 ○ 2023.11.10.~11.11 서울연극센터 연극*하기와 보기 공모 선정작 <단체 실적> 1. 2023.06.28.~07.09. 드림시어터,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2. 2023.11.10.~11.11. 서울연극센터,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공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OfcQsXZBno		
참여인원	총 13명 (출연진 4명 / 스태프 9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30대 이상 부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 너비(8m)×높이(3m)× 깊이(8m)	무대시설 세트, 조명, 음향설비
	기획 및 제작의도 극단 전망의 창단 정신은 창작극 발굴을 통해 세상에 대한 대범한 시각과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새로운 극형식과 무대언어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무관심, 집착으로 인해 일어나는 비극과 인간성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이어온 김나영 작가의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코믹하면서도 가슴 짙은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혼자만 살아내기에라도 힘든 무한 경쟁이 판을 치는 현대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성과 독특함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비슷한 대회를 주고받는다. 어쩌면 이 작품 속의 두 부부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p>이에 연극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싶다. 이 작품 속 두 쌍의 부부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제도나 부부가 함께한 시간의 길이만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 없음을 꼬집는다. 예를 들어 작품 속 중년부부는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나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 부부의 이혼이 곧 사랑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작품 속 노년부부는 결혼한 지 45년이 된 사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기에다 아니라고 하기에다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부가 함께한 시간의 길이로 두 사람의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디선가 본 듯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객은 무의식중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공연의 형태로 마주함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스스로 정한 기준과 관계의 정의가 절대 불변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경계를 허물 때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작품 속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관계”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야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한다.</p>
컨셉 및 주제	<p>“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꽤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p>
내용 및 특징	<p>공연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중년부부 에피소드의 두 사람은 3년 전에 이혼했지만 도무지 헤어진 이유를 알 수 없을만큼 사이가 좋다. 남편 주현이 시한부가 됐음을 고백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계속될 줄 알았던 사랑이 이제는 정말 끝날 것만 같다. 아직 젊으니 치료할 수 있다고 눈물로 매달리는 전처 영을 달래며, 최선책을 잃었으니 차선책을 말해주겠다고 주현은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죽어서도 전처와 딸을 책임지고 싶은 주현의 사랑이 묵직하게 가슴을 울린다. 노년부부 에피소드의 두 사람은 자식 넷을 모두 출가시키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단조로운 삶을 견디고 있다. 오늘 두 사람은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소풍을 나왔다. 싫다는 남편 장수를 억지로 끌고 나온 아내 혜숙은 35년간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오늘 꼭 털어놓아줬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청심환까지 미리 먹고 준비할만큼 긴장하면서도 꼭 털어놓고 싶은 혜숙의 비밀은 무엇일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 공연 수정 계획 등 극 중 중년부부의 연령대와 배우의 실제 나이 사이에 괴리가 있었으므로, 가장 적합한 배우를 캐스팅한다. 의상의 경우 배우의 재량에 맡겼으나 작품 속 인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다. 음악의 경우 좀 더 경쾌함을 살릴 수 있는 음악으로 재구성한다. 무대를 상징적으로 디자인했으므로 따뜻한 느낌을 보강한다.</p>
기대효과	<p>- 예술적 성취 ① 세대 간 이해도 향상: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다. 작품이 직접적으로 세대 갈등을 다루는 것은 아니나, 관객 스스로의 가족 경험에 투영하기 쉬운 소재를 다루므로, 세대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사랑과 이해, 수용에 대한 개념 재고: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랑, 이해, 수용의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나 더 깊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자아성찰: 작품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놓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를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므로, 관객은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얻는다. ④ 공감능력 향상: 작품 속 부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부딪힌다. 그들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관객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⑤ 사회적 가치 인식: 작품은 부부라는 긴밀한 인간관계가 직면하는 사회적 가치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와 직면한 부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해나간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개인이 만난 사회적 이슈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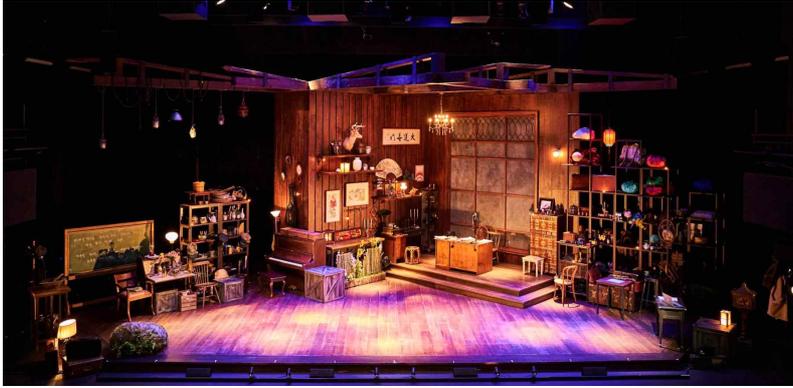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p>- 성장 가능성</p> <p>① 작가가 시부모님의 일상을 관찰하며 노부부 에피소드를 담은 단막극 <소풍>을 쓴 것이 20년 전 일이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 기대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긴 오늘날 40대 부부를 중년부부라고 부르기 어색해졌고, 60대 부부를 노년부부라 칭하기 조심스러워졌다. 부부의 형태와 연령대를 확장하고 세분화하여 현대적인 감수성에 훨씬 잘 어울릴 새로운 에피소드 창작 의뢰는 유의미하다.</p> <p>② 최소 네 쌍 이상의 부부 에피소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인 배우 발굴에 기여하며, 극단 레파토리 공연으로 자리매김 한다. 캐스팅 범위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각 에피소드를 선택적으로 편성하여 다채로운 관극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p> <p>- 사업 확장성</p> <p>① 기업 강연과 융합한 문화 사업으로 확장한다. 역사상 가장 빠르고, 넓은 범위의 소통을 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이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관계에서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곤란한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당장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부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현실 세태를 꼬집으며 기업 강연과 연계한 문화 사업으로 확장했을 때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p> <p>② 연기자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확장한다. 전문 연기자뿐 아니라 연기 동호회 및 시민 체험 활동 등의 교보재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접근성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극단처럼 전문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연극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며 적극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연극계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p>

연극 9 주식회사 엠비제트컴퍼니 : 연극 <빵야>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식회사 엠비제트컴퍼니		
공연명	연극 <빵야>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mbz_company/
실무자명	김수연	E-mail	sy.kim@imbz.co.kr
		연락처	(02) 6956-5699
단체소개	<p>엠비제트컴퍼니는 “More people, Better world, to the Zenith”라는 미션 하에 2017년 설립된 문화예술 전문단체입니다. 연극·뮤지컬·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2020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수상한 고강민 프로듀서를 대표로, 트렌드를 이끄는 ‘콘텐츠’와 이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를 최우선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프로듀서, 작가, 작곡, 연출 다양한 분야와 경력의 창작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위로와 연대 등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의식부터 선택과 변화, 미래를 향한 고민까지. 현 시대를 무대 위에 그려내는 엠비제트컴퍼니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지향하며 매체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섬세히 제작하여 널리 전파하겠습니다.</p>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헤르츨란> /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3관 / 기획, 제작 <p>2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 오디오북 플랫폼 [SHOW:CRIP] 론칭 / 개발, 기획, 제작 - 연극 <헤르츨란> 중국 상해 쇼케이스 - 음악극 <붉은머리 안> / 스튜디오블루 / 기획 제작 - 이머시브 뮤지컬 <월하가요:Singing in the Moonlight> / 강릉 선교장 / 제작 (강릉지역 공간기반&미디어 융합콘텐츠 제작 공연 용역) - 연극 <속숨>, 뮤지컬 <피타고라스 퀴즈> /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신진스토리작가 육성지원사업 선정작) - 연극 <빵야> /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 / 기획, 제작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 <p>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광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쇼케이스 - 연극 <헤르츨란> / 브릭스씨어터 / 기획, 제작 - 연극 <회란기> 중국 상해 K-씨어터 상영회 개최 <p>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우리동물원> / 아트원씨어터 2관 / 공동제작 - 뮤지컬 <히드클리프>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기획, 제작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선정작) <p>외 다수.</p>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1.31.~ 02.26.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 연극 <빵야>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 ○ 수상실적 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제61회 K-씨어터 어워즈 대상) 2023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월간 한국연극 공연베스트 7)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01.16.~04.07.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3관, 연극<헤르츨클란> 2. 2023.07.04.~08.27. 스튜디오블루, 음악극<붉은머리 안> 3. 2023.06.08.~06.14. 이머시브 뮤지컬 <월하가요:Singing in the Moonlight> 4. 2023.01.31.~02.26.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 연극 <빵야> **2023 제61회 K-씨어터 어워즈 대상 **2023 월간 한국연극 공연베스트 7 선정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연극부문 선정 5. 2021.04.06.~05.31. 아트원씨어터 2관, 연극<유리동물원> 6. 2021.01.27.~02.0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뮤지컬 <히드클리프> 		
공연영상	https://youtu.be/nnisJeXrHHM?si=NtGYk0cRWkHUIfVP		
참여인원	총 53명 (출연진 9명 / 스태프 44명)		
소요시간	총 17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주관객층	한국사 및 연극에 관심 있는 청소년, 2-40 연극 애호가, 5-70 한국사를 경험한 시니어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3.1m)×높이(9.5m) ×깊이(8.7m)	사용 배튼 수량 : 17개
기획 및 제작의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의인화된 장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대사</p>		

구 분	내 용
	<p>- 1945년 2월에 탄생한 99식 소총 한 자루가 연극의 주인공이다. 장총은 무대에 사실적 소품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인화되어 인물로 등장한다.</p> <p>역사의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이면으로 밀려나고 이야기 속에서도 지워진 '낡은 장총 한 자루'라는 존재를 가지고 역사의 배후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조망하고자 한다.</p>
<p>컨셉 및 주제</p>	<p>1) 작품 주제</p> <p>역사를 '소비'하는 시대에 던지는 질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현대 드라마 작가 '나나'는 장총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역사를 다루면서 '자본과 필요'라는 피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생존 방식에 때론 맞서고 때론 타협한다. 그 과정에서 장총 '빵야'의 이야기를 써가는 서사 또한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p> <p><u>그 역사를, 그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이다.</u></p> <p>2) 공연 컨셉 및 특징</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역사를 '관통한' 장총과 역사를 '써먹을' 궁리만 하던 작가의 뜨거운 만남</p>  </div> <p>1945년 2월에 탄생한 99식 소총 한 자루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재로 대규모 시대극을 집필하려는 작가.</p> <p>역사의 생생한 현장, 그 가운데 항상 있었지만,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낡은 장총 한 자루'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현대사는 어떠한 모습일까?</p>

구 분	내 용
	<p>◎ 관람포인트 1. 소품 할아버지의 드라마 창고 세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뽕야>의 무대는 '소품창고'를 컨셉으로 한다. 무대 위 다양한 소품들은 소품 창고에 쌓인 물건들이자 에피소드별 달라지는 시공간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1945년 만주, 해방 후 부산, 4.3사건이 벌어진 제주, 종전 후 지리산, 21세기 영화 촬영장까지 장총 '뽕야'의 여정을 따라 관객은 무대를 통해 지나간 한국사에 함께한다. - 무대 위의 소품을 활용하여 장면의 상징성을 표현하거나 그림자 효과를 활용한 연출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미장센을 만들어내어 관객들의 몰입감을 더한다. <p>◎ 관람포인트 2. 현대와 과거의 전환, 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초연하여 현재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뮤지컬 <빨래>와 배우 박보검의 출연으로 화제가 된 뮤지컬 <렛미플라이>의 작곡가 민찬홍이 연극 <뽕야>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민찬홍 작곡가의 저력은 연극 <뽕야>에서 음악이 단순한 BGM이 아닌, 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빛을 발한다. - 드라마 작가 나나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배경에서 극이 진행될 때 음악은 서정적인 톤을 중심으로 관객이 나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치한다. 나나가 구축하는 드라마 속 역사장면이 무대 위에 구현될 때엔 장총의 이동을 따라 각 주인공들의 테마곡으로 장면을 시작하며 드라마의 흐름을 음악이 주도, 분위기를 구성한다. <p>◎ 관람포인트 3. 장면 변화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군무 & 군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총 뽕야의 여정에 따라 각 장면에서 장총의 주인은 간도 특설대, 중국 팔로군, 조선경비대, 국군과 인민군, 빨치산 등 다양한 인물을 거쳐 간다. 서로 다른 캐릭터의 등장과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만큼 연출적으로 각 장의 시작에 군가와 군무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구 분	내 용
	<p>◎ 관람포인트 4. 한국사의 아픔을 그려내는 멀티 플레이어 7인의 열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빵야>는 장총 빵야와 작가 나나를 제외한 7명의 배우들이 1인 다역으로 기 무라, 길남, 선녀, 무근, 신출, 원교, 아미, 동식, 설화 등 '장총의 지나간 주인' 역할을 맡아 역경의 한국사를 거쳐 온 개개인을 한 명씩 조명하는 형태로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다. - 멀티 플레이어 7인은 장총의 주인을 포함하여 극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나나와 빵야의 주변 인물로 기능하며 최소 2인 이상의 배역을 다채롭게 소화하여 극의 재미를 더한다.
<p>내용 및 특징</p>	<p>① 시놉시스</p> <p style="text-align: center;">“물음표 하나가 정리되기 전에 다른 물음표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써나가기 무척 힘들었습니다.”</p> <p>번번이 편성에 실패하는 한물간 40대 드라마작가 나나는 소품창고에서 '99식 소총' 한 자루를 발견한 후 편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자세로 집필을 시작한다.</p> <p>하지만 돋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해야 하는 등, 편성을 위해 타협할 것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장총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져 간다.</p> <p>평소처럼 장총의 이야기를 듣던 어느 날, 나나는 그의 방아쇠가 일반적인 방아쇠가 아닌 다른 금속물을 가져다 붙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p> <p style="text-align: center;">“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p> <p>나나는 과연 거대한 상업자본에 맞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총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장총은 평생 꿈꿔 온 자신의 소원을 마침내 이룰 수 있을 것인가?</p> <p>② 등장인물</p> <p>◎ 빵야 : 1945년 2월, 인천 조병창에서 생산된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주력 소총. 2차대전, 한국전쟁 등 온갖 전장을 거쳐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 곳곳에서 활동했다. 창고의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던 2022년, 드라마작가 나나를 만난다.</p> <p>◎ 나나 : 번번이 편성에 실패하는 한물간 40대 여성 드라마 작가. 장총의 존재를 발견한 후 자료조사와 취재를 시작, '흥행'이 될 소재로 발전시킨다. 거대 제작사와 계약에 성공한 이후, 방송 '편성'을 위한 처절한 집필이 시작된다.</p> <p>◎ 그리고, 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빵야'를 거쳐간 주인들</p>

구 분	내 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무라 : 장총의 첫 번째 주인. 일본군 조선인 장교 - 원교 : 장총의 여섯 번째 주인. 한국군 학도병 - 길남 : 장총의 두 번째 주인. 일본군 조선인 병사 - 아미 : 장총의 일곱 번째 주인. 북한군 의용대 - 선녀 : 장총의 세 번째 주인. 팔로군 조선인 전사 - 동식 : 장총의 여덟 번째 주인. 빨치산 토벌대 - 무근 : 장총의 네 번째 주인. 국방경비대 이등병 - 설화 : 장총의 아홉 번째 주인. 소녀 빨치산 - 신출 : 장총의 다섯 번째 주인. 서북청년단 단원 <p><공연수정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드라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피소드별로 음악과 안무, 미장센으로 지루하지 않게 장면들을 만들어냈으나, 다뤄야 하는 인물이 방대함에 따라 러닝타임이 3시간에 육박하는 작품이 완성되었고, 공연 관람에 부담을 느끼는 관객이 일부 있었다. 이에 재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펼쳐지는 거대한 한국사의 흐름 속 인물들의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u>나나가 드라마 작가로서 겪는 갈등의 분량을 일부 덜어내어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게끔 대본을 수정, 전체적으로 공연의 구성과 내용이 더욱 탄탄해지게끔 보완하고자 한다.</u> - 한편, 캐릭터 측면에서 '나나'의 경우 방대한 양의 대사를 소화함에도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기능적인 역할로만 존재하여 아쉽다는 내부 리뷰가 있었다. 재연에서는 장면 수정과 더불어 재구성을 통해 '나나'가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별로 인물들과 더 화합되어 장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음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빵야>는 한국사와 지난 전쟁들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폭탄, 총과 같은 음향 효과들이 많이 사용된다. 극장 공간 컨디션에 따라 입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크 확성을 통해 대사가 원활하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음향 컨디션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무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연 당시, 상부와 벽체, 대소도구들과 소품 드레싱으로 구성된 무대 특성 상 설치·관리·철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재연에는 수십 개가 넘는 소품을 모듈화하여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td> </tr> </table>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피소드별로 음악과 안무, 미장센으로 지루하지 않게 장면들을 만들어냈으나, 다뤄야 하는 인물이 방대함에 따라 러닝타임이 3시간에 육박하는 작품이 완성되었고, 공연 관람에 부담을 느끼는 관객이 일부 있었다. 이에 재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펼쳐지는 거대한 한국사의 흐름 속 인물들의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u>나나가 드라마 작가로서 겪는 갈등의 분량을 일부 덜어내어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게끔 대본을 수정, 전체적으로 공연의 구성과 내용이 더욱 탄탄해지게끔 보완하고자 한다.</u> - 한편, 캐릭터 측면에서 '나나'의 경우 방대한 양의 대사를 소화함에도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기능적인 역할로만 존재하여 아쉽다는 내부 리뷰가 있었다. 재연에서는 장면 수정과 더불어 재구성을 통해 '나나'가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별로 인물들과 더 화합되어 장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빵야>는 한국사와 지난 전쟁들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폭탄, 총과 같은 음향 효과들이 많이 사용된다. 극장 공간 컨디션에 따라 입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크 확성을 통해 대사가 원활하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음향 컨디션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연 당시, 상부와 벽체, 대소도구들과 소품 드레싱으로 구성된 무대 특성 상 설치·관리·철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재연에는 수십 개가 넘는 소품을 모듈화하여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피소드별로 음악과 안무, 미장센으로 지루하지 않게 장면들을 만들어냈으나, 다뤄야 하는 인물이 방대함에 따라 러닝타임이 3시간에 육박하는 작품이 완성되었고, 공연 관람에 부담을 느끼는 관객이 일부 있었다. 이에 재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펼쳐지는 거대한 한국사의 흐름 속 인물들의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u>나나가 드라마 작가로서 겪는 갈등의 분량을 일부 덜어내어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게끔 대본을 수정, 전체적으로 공연의 구성과 내용이 더욱 탄탄해지게끔 보완하고자 한다.</u> - 한편, 캐릭터 측면에서 '나나'의 경우 방대한 양의 대사를 소화함에도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기능적인 역할로만 존재하여 아쉽다는 내부 리뷰가 있었다. 재연에서는 장면 수정과 더불어 재구성을 통해 '나나'가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별로 인물들과 더 화합되어 장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빵야>는 한국사와 지난 전쟁들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폭탄, 총과 같은 음향 효과들이 많이 사용된다. 극장 공간 컨디션에 따라 입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크 확성을 통해 대사가 원활하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음향 컨디션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연 당시, 상부와 벽체, 대소도구들과 소품 드레싱으로 구성된 무대 특성 상 설치·관리·철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재연에는 수십 개가 넘는 소품을 모듈화하여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p>◎ 역사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관객층의 문화향유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빵야>는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도 드라마 작가 나나라는 캐릭터를 통해 각 시대의 인물과 이야기를 섬세한 스토리로 펼쳐낸다. 작품의 소재 자체가 누구에게나 친숙한 한국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관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통적인 연극(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공연시장의 입문을 유도한다. 즉,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전국 공연시장의 소비자층 확대에 기여하여 더 다양한 스타일의 장르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p>◎ 우수한 국내 창작 순수예술 유통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증 받은 단체의 우수 작품을 전국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지역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공연장이 주로 위치한 서울 외의 지역에서 공연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 						

구 분	내 용
	<p>역과 인접 지역 시민들이 공연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공연장을 포함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연장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순수예술의 매력을 경험한 관객들이 다른 공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전국 공연장의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관객 유입 및 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공연예술 생태계 선순환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빵야>를 비롯한 우수 작품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지역 공연장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공연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민간예술단체의 작품이 다수의 공연장에서 공연됨으로써 공연장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연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문화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 중장기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 공연장 투어를 진행한 후 중국, 영국 등 해외 공연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진출을 목표로 장기적인 해외 공연을 통해 국내 창작 공연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이후 더욱 확장된 작품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국내 전국투어에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 공연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순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극 10 극발전소301 : 연극 <밀정리스트>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극발전소301		
공연명	연극 <밀정리스트>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301theater
실무자명	김성진	E-mail	kim91go@naver.com
		연락처	(070) 8955-1740
단체소개	<p>극발전소301은 젊고 신선한 창작연극을 지향합니다. 연극의 세 가지(3)요소를 활용하여 무(0)에서 하나의 유(1)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2008년 창단하여 16년간 창작극 58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劇의 발전을 모색 중입니다.</p> <p>극발전소301은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창작극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연극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현재의 관객이 극장을 찾고, 극장에서 현재를 읽을 수 있는 연극을 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p> <p>첫째. 시대를 기록하고 우리의 모습을 공감하고 돌아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고전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재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미래를 관통하고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수의 작가와 연출을 보유하려 노력해왔으며 16년간 58개의 창작극을 개발하고 제작해 온 것입니다. 초고로 완성되는 희곡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듯 계속 기록되어야 합니다.</p> <p>둘째. 시대에 회자될 명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연극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그것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극발전소301은 단발적인 공연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창작극을 제작하여 꾸준히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중입니다.</p> <p>셋째. 연극의 가치와 의미를 관객에게 선사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4년간 다수의 연극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고 좌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작업자들과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극발전소301의 목적이며 그렇게 계속 연극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정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9.20.~10.01. 민송아트홀1관 공연(극발전소301 자체 제작) ○ 2023.10.20.~10.2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선정(남양주 다산아트홀) ○ 2023.11.16. 제1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 선정 - 대상, 연출상, 희곡상, 최우수 연기상 4관왕 수상 ○ 2024.01.27. 제10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용인 우수공연초청작 베스트컬렉션3선정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3.24.~03.28. 대학로 선돌극장 <시체들의 호흡법> 2021.03.31.~04.04. 대학로 선돌극장 <건달은 개뿔> 2021.05.08.~05.09. 남양주 다산아트홀 <벚꽃 피는 집> 		

구분	내용		
	2021.06.26. 관악아트홀 <타임택시> 2021.07.15.~07.25. 스튜디오76 <퇴근 후 서커스> 2021.09.29.10.10. 씨어터쿵 <벚꽃 피는 집> 2021.10.13.~10.15. 씨어터쿵 <음악극 로봇걸> 2021.11.12.~11.13. 다산아트홀 <음악극 로봇걸> 2022.04.06.~04.10. 동송무대소극장 <밀정리스트> 2022.07.13.~07.24.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건달은 개뿔> 2022.08.17.~08.27. 홍대아트센터 소극장,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작 <패밀리 M의 병> 2022.09.21.~10.02. 대학로 물빛극장 <인질극X> 2022.10.15.~10.16. 다산아트홀 <가족 뮤지컬 전설의놀이왕> 2022.10.27.~11.6. 서경대학교 스킨2관 <건달은 개뿔> 2022.11.12.~11.13. 예술공간 혜화, 2인극페스티벌 참가작 <불청객> 2022.12.14.~12.13. 대학로우리소극장 <짧은연극전 6> 2023.06.9.~06.10. 다산아트홀 <전장의 시> 2023.09.20.~10.01. 민송아트홀1관 <밀정리스트> 2023.10.14. 노작홍사용 문학관 <저수지의 일> 2023.10.20.~10.21. 다산아트홀 <밀정리스트> 2023.10.27.~10.29. 여행자극장, 10분연극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2023.11.16. 여수시민회관, 전남예향전국연극제 <밀정리스트> 2024.04.10.~04.14. 동송무대소극장 <벚꽃피는 집> 2024.04.17.~04.21. 동송무대소극장 <할매TV>, <저수지의 일> 2024.04.30.~05.5. 동송무대소극장 <그 해 크리스마스 멜로디>, <빈 방> (예정) 2024.05.8.~05.12. 동송무대소극장 <인간을 보라> (예정) 2024.05.16.~05.26. 동송무대소극장 <뮤직할 가족> (예정) 2024.07.21. 통영시민문화회관, 통영연극예술축제 폐막작 <까멜리아> (예정) 2024.08.24.~08.25. 남양주 다산아트홀 <뮤직할 가족> (예정) 2024.09.4.~09.15. 씨어터쿵 <밀정리스트> (예정) 2024.10.25.~10.26. 남양주 다산아트홀 <미자> (예정) 2024.11.13.~11.17. 공간아울 소극장 <미자> (예정) 2024.12.4.~12.15. 세명대 민송아트홀 1관 <인터뷰> (예정)		
공연영상	https://youtu.be/oaj1menwdnl?si=pPYwHk6Y9nRYjygl		
참여인원	총 19명 (출연진 6명 / 스태프 13명)		
소요시간	총 10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0-50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7m)×높이(3 m)× 깊이(5 m)	세트, 조명 바텐 수, 덧마루 수 등 필수 시설 기재
기타 사항	☞ 빔프로젝트 사용, 상부 샤막 설치		

구 분	내 용
기획 및 제작의도	<p>▶ 잘못된 역사에 대한 고발</p> <p>본 작품 <밀정리스트>는 정범철 작가가 KBS 탐사보도를 통해 수많은 밀정이 아직도 독립운동가로 둔갑하여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게 만드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적 소명과 사명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p>
컨셉 및 주제	<p>-</p>
내용 및 특징	<p>1) 공연 내용</p> <p>1929년, 경성의 은신처, 의열단원 최태규와 신화진, 김명순이 초조해하며 김충옥을 기다리고 있다. 상해에서 거사에 투척할 폭탄을 가져오기로 했던 김충옥이 소식이 없던 탓이다. 걱정도 잠시, 충옥이 폭탄을 유통할 줄 아는 정설진과 권총 4정, 탄알 800발, 폭탄 4개를 가지고 도착한다. 그들의 목적은 종로경찰서에 있는 사이트 총독을 암살하는 것이었다.</p> <p>치밀하게 계획한 그들의 거사가 예상과는 다르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은 사전에 계획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부에서만 논의했던 계획이 밖으로 새어 나가자 그들은 내부에 밀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 이에 충옥은 추후 거사에 있어서 의심이 독이 될 거라 판단하고 동지들을 다독이지만, 사실 충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충옥은 내부의 적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추후 거사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지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밀정을 찾기 시작한다.</p> <p>이후 충옥은 밀정으로 의심되는 최태규와 신화진에게 각자 다른 정보를 흘려 일본 순사들이 어느 곳에 배치되는지를 파악하여 최태규가 밀정임을 밝혀낸다. 최태규는 자신의 상황을 표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충옥은 조선혁명선언에 따라 매국노를 처단하려 한다. 그런데 그때, 최태규는 내부에 밀정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며 밀정이 한 명이 아님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려는 최태규를 충옥의 여동생이었던 김명순이 총살한다. 명순은 최태규가 우리 내부 안에 의심을 피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의심은 명순을 쫓아가고 벼랑 끝에 몰린 명순은 동지 모두에게 총을 난사한다. 총격전이 벌어지며, 신화진과 정설진이 총을 맞아 죽게 되고, 충옥이 명순을 제압한다.</p> <p>명순은 충옥에게 자신이 밀정임을 밝히며, 절대로 독립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충옥에게 도망가자 말한다. 그러나 충옥은 결코 명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동생인 명순을 쓸 수도 없는 노릇.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충옥의 숨은 동지 경식이 멀리서 명순을 쏘버린다. 충옥이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숨이 붙어있는 명순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는 경식. 그러나 충옥이 이를 멈춘다. 경식은 밀정을 살려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충옥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누구든 밀정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죽이지 못하면 앞으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충옥은 숨을 헐떡대는 명순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총을 쏘고 막 내린다.</p> <p>2) 공연 특징</p> <p>▶ 흥미를 유발하는 사회적 추론게임 형식 차용</p> <p>의열단원 6명이 정보 유출로 인하여 거사에 실패하자 서로를 의심하며 내부 밀정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 작품은 관객의 입장에서 6명 개개인을 의심할 수 있는 힌트를 작품 곳곳에 심어놓아 사회적 추론게임, 이른바 마피아 게임처럼 인물들을 추리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흥미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p>

구 분	내 용
	<div data-bbox="355 342 871 707"> </div> <div data-bbox="887 342 1406 707"> </div> <p data-bbox="355 741 932 779"><자신의 동지들을 의심해야 하는 의열단원들></p> <p data-bbox="355 840 719 875">▶ 리얼리즘을 기반한 드라마</p> <p data-bbox="355 902 1423 1032">본 작품은 거사를 준비하고 실패하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아지트를 주 무대로 하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의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장소 변화 역시 조명 효과 등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측면 벽을 열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실재를 보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p> <div data-bbox="355 1077 778 1485"> </div> <div data-bbox="794 1077 1406 1485"> </div> <p data-bbox="355 1525 1222 1561"><같은 공간이나, 무대 뒤쪽 벽이 열리면서 새로운 공간(국수집) 표현></p> <p data-bbox="355 1624 531 1659">▶ 밀정리스트</p> <p data-bbox="355 1686 1423 1816">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빔프로젝터를 이용, 현충원에 안치된 수백 명의 밀정들의 이름을 관객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본 이야기는 연극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p> <div data-bbox="355 1850 855 2098"> <p data-bbox="395 1899 823 2029">KBS 탐사보도부는 2019년 취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밀정 8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중에 상당수의 인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고 여전히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다.</p> </div> <div data-bbox="863 1850 1362 2098"> <p data-bbox="903 1910 1331 2029">국가보훈처는 진실을 규명하고 신분세탁을 한 밀정들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밀정 89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p> </div>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극 중 엔딩 장면애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쓰이는 밀정 List></p>
기대효과	<p>○ 잊혀가고 있는 역사의식 고취</p> <p>-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제껏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고, 보지 않아서 공감하지 못할 뿐, 두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봤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때의 역사와 현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 극에서 나오는 처절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보며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들의 역사의식이 고취되기를 바란다.</p> <p>○ 레퍼토리 공연 형성</p> <p>- 본 사업을 통해서 몇 개의 지역을 순회하여 공연을 함으로서 향후 본 사업의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에 웰메이드 공연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곳에서 초청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역사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역사는 늘 어려운 존재다.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p>○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공연</p> <p>- 연극 <밀정 리스트>는 남녀노소 볼 수 있는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역사극이다. 하여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이 되어 연극을 잘 모르는 어르신이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함으로써 연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어줄 생각이다.</p>

연극 11 지하창작소 제자백가 : 칼치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지하창작소 제자백가		
공연명	칼치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jbg2010/
실무자명	노혜란	E-mail	jjbg2010@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춘추전국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멈출것인가? 고민하고 능력을 보였던 학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연극단체. 우리의 이야기를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무대에 소중히 담아내는 극단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배우와 작가의 상생을 위해 창작극을 다루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배우와 극단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목표성을 갖고 창단 멤버들과 13년을 함께 하고 있다.</p> <p>*2010년 1월 창단. 1인 대표, 6인 단원, 창단공연 "카페샷뿌루" *2010~2014년 "이 땅은 니 칸 내 칸" (100페스티벌 우수공연작, 거창연극제 초청공연) *2015~2017 "프린스마이프랜드" (동동동 순회 사업) *2015~2018 "망원동브라더스" (방방곡곡) *2016~2019 체홉, 여자를 읽다" (제주 해비치 우수공연선정, 서울연극제 자유 참가작) *2017 "안네프랑크" (영상대학교 후원사업) *2017 "배비장 댄" (법무부 주관, 성인지 순회공연) *2020~ "먼지깨비" "홍당무" "살인게임" 소설의 무대화 시리즈 *2022 "마녀" (여주인공 페스티벌)</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1.05.-01.09 시온아트홀 ○ 2023.10.19.-10.29 시온아트홀 / 종로다양성연극제 선정작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07.10.~07.11. 동송무대 소극장, 애드벌룬의 두꺼운 밧줄(봄을찾기) 2. 2021.12.10.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엄마, 후유증(대한민국 극작 익스포) 3. 2022.07.27.~07.31.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마녀(여주인공페스티벌) 4. 2022.01.05.~01.09. 시온아트홀, 칼치 5. 2023.07.15.~07.06. 공간아울, 모처럼썰로 6. 2023.10.19.~10.29. 시온아트홀, 칼치 7. 2023.12.15. 정선 아리랑창작센터, MBTI 4인방 		
공연영상	공연 풀영상 https://youtu.be/CTUDE_m7Wig?si=BWoHNDBdBbF35ppB		
참여인원	총 22명 (출연진 10명 / 스태프 12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15세 이상 누구나.

구분	내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p>객석규모</p>	<p>무대면적</p>	<p>무대시설</p>
	<p><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p>	<p>무대너비(20m)×높이(3m)×깊이(15m)</p>	<p>문예회관 시설은 상관없음</p>
<p>기획 및 제작의도</p>	<p>*2013년 제6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작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창작희곡 공모전의 대상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감히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 극적 재미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반전의 요소까지! 희곡을 읽은 후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상처는 덮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극은 그 희망이다!! " 현선호 침몰, 해경, 해군 책임 회피. 2명 구조. 6명 주검" 신문에 한켠 기사로 실려진 이 내용을 시작으로 창작되어진 "칼치" 칼치는 칼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강원, 경북 지역에서 불리우는 이름이다.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실화에 이야기를 풍성하게 했다. 갈치는 성격이 급해 배에 잡혀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 죽어버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땐 포악스러운 성격으로 동족을 잡아 먹기도 한다. 작품안에서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칼치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사회고발을 하기 위한 내용처럼 보여지면서도 그 내면에는 인간 고발을 담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만큼 잔인해질수 있는지.. 또한 그 안에서 사람이 왜 칼치와 다를수 있는지 그 사람냄새를 담고 있다. 다양한 연극의 형태속에서도 연극적인 연극을 고집하며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진 현 세대들에게 진한 연극으로 다가갈수 있는 작품이라 기대한다.  		
<p>컨셉 및 주제</p>	<p>*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치를 통해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인간의 악랄함과 그 안에 보여지는 사람냄새.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사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인간에 대한 고발. <p>*공연 컨셉_연출 방향성</p> <p>애초에 중장년층이 흥미로워 할것이라 생각했으나 매트로 감성에 익숙해진 젊은세대들의 관심이 더해져 전 세대가 각자의 감성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작품이라 판단. 전체적 구성을 밝은 색감으로 생각하고 구성하였다. 인간의 내면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이기에 무대는 좀더 사실적으로 어선의 모습을 갖추되 밝은 색감과 조명의 변화를 이용하여 사건의 전개에 따라 감정을 전달한다. 또한 의상의 색감 또한 원색들을 살려 보고 듣는 재미를 함께 할 것이다.</p>		

구 분	내 용
	<p>또한 배 위 소품들을 인터넷을 통한 구입이 아니라 모두 현지답사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바다 냄새를 관객들에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음악과 음향들을 통해 옛날 노래들을 선보이고 다양한 변주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선보인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내용 및 특징</p>	<p>*줄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을 노린 선주와 안팀장의 계획으로 부산항 갈치잡이 어선 삼봉호는 충돌 침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4명이 실종. 사망하게 된다. 그 중에 해류를 떠다니다 발견된 명호는 병실로 옮겨진다. 조사관은 충돌 외 해수펌프 고장으로 인한 침몰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명호에게 진술을 요청한다. 이에 명호는 혼자 살아 남은 죄책감과 고통에도 침몰 직전 일어났던 선상 난동과 선장의 악랄함에 대해 진술하게 되는데...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를 현지 답사하며 선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감정들을 구축 배우들이 뱃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리려 노력하며 실제로 답사를 통해 어떻게 배 위에서 생활 하는지 등을 듣고 최대한 공연에 적용해 보려 노력하였다. - 공연의 극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각지에서 모인 뱃사람들이라는 내용과 맞게 여러 지역을 사투리를 구사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언어적인 재미도 더한다. - 현지에서 배 위 물건들을 직접 조달, 무대위의 감각으로 재탄생. 생활감이 가득한 소품을 놓아야 극의 생생함도 함께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현지에서 조달한 소품을 놓았다. 극장을 들어서는 순간 바닷가의 비릿함이 진동한다. - 하나의무대, 두 개의 장소 기본적으로 무대는 배를 묘사하고 있다. 꽤 사실감 있게. 그런 무대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무대 한 칸에 병원 침대가 마련되고 서명호가 누워있는 병실이 된다. 이렇게 배 같은 무대를 병실로 만드는 모습도 무대를 보는 재미 또한 느끼게 한다.

구 분	내 용
	<p>- <u>심리전의 향연과 반전의 묘미</u> 서명호의 진술에 따른 배 위의 상황과 조사관과 서명호와의 심리전 같은 대사들은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객들에게 고민을 안겨준다. 그리고 배 위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의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서명호의 이야기는 사람냄새 나면서도 인간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반전이 숨어 있어 마지막에 관객이 느끼는 재미가 배가 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공연수정 계획</p> <p>*무대보강 배 위를 묘사한 무대가 어느새 병실이 된다. 이 과정에서 더 복잡하지는 않지만 더 사실감있게 병실로 만들 디자인을 구축하고, 현재 작은 소극장에서 이루어졌던 무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보강하고자 한다.</p> <p>*배역의 정리 원래의 공연의 배역이 11명이었으나 배역의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대 위에서 중요하지 않은 배역은 없다고 하나 극의 밀도감을 방해하는 배역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으로 결정한다.</p> <p>*조명디자인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아주 좋은 컨디션의 조명기기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명감독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하나의 무대에 두 개의 장소를 조명으로 구분하는 디자인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서 원래의 연출 컨셉과 조명감독님의 디자인대로 장소 구분에 대한 것과 밝은 느낌의 조명을 살리기를 바란다.</p>
<p>기대효과</p>	<p>*연극적인 연극, 그리고 그 속의 메시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정극이라는 연극의 자리가 위태롭기도 하다. 칼치는 다양한 연극의 형태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가장 연극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작품이다. 극의 반전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작품으로 관객들의 극을 보는 몰입도 또한 높이는 장점이 된다.</p> <p>*다양한 언어의 재미 어선에 모인 다양한 지역의 선원들의 언어를 듣는 재미가 있다.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 등 여기 저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u>지역언어</u>, 그리고 <u>벚사람들의 언어</u> 등 어떤 지역에서는 생소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익숙한 언어를 접할 수 있다.</p> <p>*MZ세대 관객반응 "극의 몰입도가 있다" "사건의 흥미로움과 반전의 재미가 있다" "매체작품을 보는 듯한 템포감이 좋다"</p>

구 분	내 용
	<p>“배우들의 연기로만 느껴지는 연극재미가 있다” 등 공연을 관람했던 10대 후반, 20대 초반 관객들이 던져준 관극평이다. 혹자는 배우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겠냐고 하지만 탄탄한 극본과 배우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젊은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공감과 재미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p> <p>*국내 창작극의 발전 기여도 극작가 협회에서 발간된 희곡명작선을 통해 작품을 찾아내었고 8년만에 재공연. 이렇듯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작품들의 재발견과 창작공연의 가치 발견. 극작가들의 활동을 이어갈수 있는 발판 제공 한다.</p> <p>*연극예술가들의 원동력 13년이 되는 극단의 힘은 배우들이고 그들이 무대 위 배우로써 활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로 존재하는 존재가치, 위상 회복 시킨다. (실제로 프로젝트 극단이 아닌 연극 고유의 극단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p>

연극 12 코끼리들이 웃는다 : 물질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코끼리들이 웃는다		
공연명	물질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elephantslaugh.com/
실무자명	이호연	E-mail	fromhylee@naver.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첫 작품은 <입정동 바람, 바람>으로, 2009년도 을지로3가 일대 커뮤니티 기반의 이동형 공연이다. 2009년 코끼리들이 웃는다 창단 이후, 장소성과 커뮤니티, 관객 참여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로 일상 공간에서 소재를 발견해 현장에서 커뮤니티(난민, 구로공단의 미싱사, 입정동의 사장님들, 시각 장애인, 어르신 등)와 장기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을 공연으로 만들었다.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하나의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공연의 주제마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언어보다는 다양한 감각을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관객의 역할 확장에 대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거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2주, 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3주, 4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호주 WOMADelaide 위마들레이드 축제 초청작 ○ 2023.8.~2023.9 315아트센터 자유마당,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광주예술의 전당 원형극장 *2023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사업 선정작 ○ 2023.7. 세종문화회관 Sync next 초청작, S씨어터 <물질> ○ 2022. 8. 스페인 베라노스 데 라 빌라 축제 초청작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4.15.~4.23. LG아트센터 U+스테이지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 2022.10.8.~1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아르코대극장 <잠자리 연대기> ○ 2022.3.30.~4.10. 국립극단 소극장판 <커뮤니티 대소동> 		
공연영상	https://1drv.ms/v/s!AuAMOpimukC0guhjgtSG5Q2HUJsuyg?e=whpKSG		
참여인원	총 17명 (출연진 8명 / 스태프 9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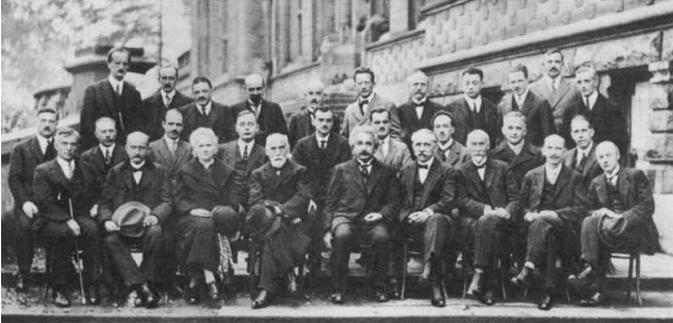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p style="text-align: center;">객석규모</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면적</p>	<p style="text-align: center;">무대시설</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 10(m) × 깊이6(m) + 객석	무대 위 관객석 운용, 분장실 (배우, 관객, 폐쇄형 음성해설 등) 사용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장실 및 공연장 물 사용 관련 (무대 방수 보강 계획 수립 예정) -무대 하중 관련 기술적 논의 필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판넬 보유) -극장형태에 따른 무대 위 관객석 설치 필요 -폐쇄형 음성해설 및 공연 전 터치투어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우선 예매석 운영 -폐쇄형 음성해설을 위한 분장실 필요 		
기획 및 제작의도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바다에 몸을 담고 있다.” 누구도 삶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혐오를 동시에 견뎌내는 이들에게 빛지고 있다.</p> <p>본 공연의 시작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난민 커뮤니티이다. 공연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삶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삶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그렇다. 각자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물결 앞에서, 같은 물속에 함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p>		
컨셉 및 주제	<p>[관객 참여]</p> <p><물결>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공연 초반 네 명의 배우는 임신부, 트랜스 젠더, 노동자 그리고 성형중독자의 일상과 물질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후 커뮤니티가 등장하여 관계를 맺는다. 배우는 수조에서 나와 관객을 이끌고, 관객은 수조로 들어가 커뮤니티와 만나게 된다. 국내/외 9개 도시에서 20회 넘는 공연을 진행하며 관객은 기꺼이 (웃이 다 젖음에도 불구하고) 수조로 들어가 커뮤니티와 머무르며 함께 공연을 만들어 왔다. 밖에서 관람하는 관객들은 무대 위의 관객들에 자신을 투영하여 극의 경험을 더 극대화 한다. 공연이 끝났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수조 안에 있는 관객과 커뮤니티가 수조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창작자에게 이러한 관객들의 몰입과 참여는 상상하지도 못한 감동의 순간이다. 관객은 커뮤니티와 참여한 관객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낸 용기,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연대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p> <p>*매 공연마다 물속에 들어간 관객을 위해 집에 입고 갈 수 있는 속옷, 상의와 하의가 준비된다.</p>		
내용 및 특징	<p>[공연 내용]</p> <p>밤마다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거워요. 그렇게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발끝을 잔뜩 세워서 견게 됩니다.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면 호흡을 아끼니다. 하루를 살아남으면 다시 하루가 반복됩니다. 밤마다 웅크린 채로 누워 묻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것이 맞나요? 아침이면 대답처럼 눈이 떠집니다. 섬처럼 떨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물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번져가는 물결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물결은 도무지 지치지 않습니다. 물결을 이해하려다 물음을 멈추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것이 맞나요? 대답처럼 물결이 흔들립니다.</p>		

구 분	내 용
	<p>[배리어 프리]</p> <p><물질>은 음성해설, 터치투어를 진행한다. 음성해설은 수신기를 통해 공연 장면과 배우들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해설된다. 해당 대본은 시각장애인 김시락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외 감각들을 활용해 공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터치투어는 시각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 전에 진행된다. 공연의 무대와 소도구, 의상을 직접 만져보며 공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공연 수정 계획]</p> <p><물질>은 2018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첫 공연을 올리고 서울거리예술축제와 포항거리예술축제를 거쳐 여러 해외 투어를 하며 완성도를 높여왔다. 나아가 2023년 공연유통사업을 통해 창원, 광주, 고양 등 지역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만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야외 공연으로 제작된 본 작품은 유통사업을 통해 극장 공연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날씨 영향이 큰 야외 공연의 대안을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p> <p>블랙박스 극장에서는 객석 없이 빈 공간을 활용하며, 프로시니엄의 중극장의 경우 무대 위에 객석을 만들어 관객이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거울 형태로 객석을 변형한다. 대극장의 경우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관객석이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과 공연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극장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p> <p>극장 무대에 관객석이 놓여지기 때문에 관객의 입, 퇴장 동선과 객석의 형식을 찾아야 한다. 추가로 극장의 음향시스템은 객석을 향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향 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p> <p>극장 내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극장 팀에게 큰 이슈다. 이점을 고려하여 극장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시도해봄으로써, 극장이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포용할 수 있도록 물 사용과 관련된 노하우와 매뉴얼을 구축해보고자 한다.</p>
기대효과	<p>예술의 사회적 역할, 동시대 공연의 담론적 유통</p> <p><물질>은 지역의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작품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담론을 창작 작품으로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만들고 지역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유통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담론을 확장시키고자 한다.</p>

연극 13 외계공작소 : 연극 <양자전쟁>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외계공작소		
공연명	연극 <양자전쟁>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alienlab5050/
실무자명	강신철	E-mail	alienlab5050@naver.com
		연락처	(0507) 1444-0425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계공작소는 과학을 소재로 연극을 만드는 극단으로 과학사, 과학 이론, SF 등 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다양한 공연을 만든다. 과학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은 예술 작품을 제작한다. 외계공작소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는 작업에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 배우, 작곡가, 극작가, 과학 연극 전문가(박사 수료)로 구성되어 예술과 과학 두 분야를 모두 섭렵하는 전문성과 극작·작곡·연출에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라는 색다른 소재로 대한민국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극단 창립 초연작으로 1920년대에 있었던 양자역학을 둘러싼 당대 최고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인 연극 <양자전쟁>을 2021년 11월 대학로 시온아트홀에서 상연하였으며, 이후 우주개발 과학을 소재로 한 이머시브 연극 <발사 6개월 전>을 2022년 6월 연희예술극장에서 상연,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발사 3시간 전>을 2022년 12월 대학로 스튜디오76에서 상연, 예술기술융복합 연극 <우주에서 나를 보다>를 2023년 8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상연, 치매 노인과 AI돌봄로봇의 공전을 그린 연극 <기억의 온도>를 2023년 11월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상연 하였다.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08 과학기술문화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 2023.11.03 국제과학관심포지움 과학문화 우수성과 발표대회 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023.05.10~07.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지원금 9천만원) ○ 2022.08.31~09.11 서울문화재단 예술활동창작지원사업 선정 (지원금 2,300만원) ○ 2021.11.26~12.05 과학창의재단 융합콘텐츠지원사업 선정 (지원금 2천만원)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11.26.~2021.12.05. 시온아트홀, 양자전쟁 -> 과학창의재단 과학융합콘텐츠 지원 선정(2021) 2. 2022.08.31.~09.11. 민송아트홀2관, 양자전쟁 -> 서울문화재단 예술활동창작지원 A트랙 선정(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2023) 3. 2022.06.15.~06.26. 연희예술극장, 발사 6개월 전 -> 과학창의재단 과학융합콘텐츠 지원 선정(2022), 서울문화재단 예술활동창작지원 A트랙 선정(2024) 		

구 분	내 용		
	4. 2022.11.24.~12.11. 스튜디오76, 발사 3시간 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지원 선정(2022) 5. 2023.11.02.~11.12. 한성아트홀2관, 기억의 온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지원 선정(2023)		
공연영상	-		
참여인원	총 16명 (출연진 4명 / 스태프 12명)		
소요시간	총 140분 (연극 90분, 인터미션 10분, 관객과의 대화 40분)	주관객층	전 연령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4m)×깊이(6m)	- 무대 세트 및 무대막 - 조명 바텐 3~4개 사용, - 자체 보유 무빙조명 4대 추가 설치
기타 사항	가변형 무대 세트로 제작되어 극장의 크기에 맞게 변형이 용이함.		
기획 및 제작의도	1. 시놉시스 1920년대 유럽, 양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과 현대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어가 만난다. 이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그렇듯 양자역학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슈뢰딩거와 하이젠베르크가 참여해 주장을 펼친다. 양자의 세계는 고전역학의 인과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코펜하겐 해석의 중심에 있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그들의 주장을 기존의 직관과 역학 체계로 반박하는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 마침내 1927년, 벨기에 술베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양자역학에 대한 논쟁으로 과학자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2. 주제 및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사의 한 순간으로부터 인식하는 현재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인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작품은 국내 유일의 과학 연극 전문 극단 '외계공작소'의 순수 창작 연극으로서, 인류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연극으로 재창조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과학 이론이 탄생하던 시기의 과학자들의 고뇌와 혼돈 그리고 좌절!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관객들은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연극 내에 등장하는 과학 지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과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 받았다. 과학자들의 언어는 '수식'이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인물들이 판서를 통한 수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은 본 작품의 백미이다. 또한 그림자 설정을 통해 연극적인 움직임과 표현을 활용하여 각종 설정과 상황 및 다중 우주를 표현하였다. 실제 남성이었던 하이젠베르크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본 연극에서 창조한 우주에서는 여성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았던 시대상으로 구현하여 성역할에 대한 혁신성을 부여하였다. ○ 기획의도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술베이 회의를 배경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이론을 둘러싼 당대 최고 과학자들의 갈등, 신념 등을 성찰하고자 한다. 과연 현대의 우리는 과학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인류의 공존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소재와 전개의 연극을 선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 분	내 용						
	<p>연극의 새로운 장르의 개척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차후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인 관심과 소양을 갖게 하고자 한다.</p> <p>- 소재의 참신성: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창작 과학사 연극</p> <p>연극계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찾으려는 일환으로 해외의 작품을 가져와 번역하여 공연을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연극도 해외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관심 있으며 흥미롭지만 콘텐츠로 제작된 적 없는 참신하고 신선한 스토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1927년 솔베이 회의를 소재로 한 연극 양자전쟁은 이러한 부분에 가장 완벽한 소재이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영화, 드라마, 연극으로 만들어진 적 없으며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최초의 실화 기반 과학 연극이다.</p>  <p>1927년 솔베이회의 기념사진 (참석자 27명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이다)</p> <p>- 양자역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p> <p>영상 플랫폼들이 발전 하면서 이제 단순히 웃고 즐길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철학적 고찰을 해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되기 시작했다. 양자역학도 그중 하나이다.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은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관련 콘텐츠의 높은 조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앤트맨, 어벤저스, 점퍼, 닥터스트레인지 등의 영화를 통해 대중들의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져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501 1451 1278 1731"> <tr> <td data-bbox="501 1451 887 1659">  </td> <td data-bbox="887 1451 1278 1659">  </td> </tr> <tr> <td data-bbox="501 1659 887 1731">안될과학 <417만회></td> <td data-bbox="887 1659 1278 1731">TED-Ed <818만회></td> </tr> <tr> <td colspan="2" data-bbox="501 1731 1278 1778">2024.4.22일 기준</td> </tr> </table> <p>※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의 양자역학 콘텐츠가 오랜 시간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p>			안될과학 <417만회>	TED-Ed <818만회>	2024.4.22일 기준	
							
안될과학 <417만회>	TED-Ed <818만회>						
2024.4.22일 기준							
컨셉 및 주제	-						
내용 및 특징	<p>1. 연출 및 무대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흥미와 집중을 높이기 위한 연출 - 다중우주 개념 도입 <p>다중우주는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어 대중에게 친숙한 개념이다.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다른 세계라는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과학자들의 삶과 솔베이 회의의 내용 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극의 재미를 위한 번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다.</p>						

구 분	내 용
	<p>- 과학자들의 신념과 감정을 관찰하는 그림자 등장</p> <p>양자역학은 인간의 직관으로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과학자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그림자' 캐릭터가 등장하여 그들의 감정과 극 중 숨겨진 의미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관객이 과학자들의 고민과 논점을 쉽게 따라갈 수 있으며 공연의 몰입도와 재미를 높인다.</p> <p>o 완성도 높은 작품 창작을 위한 무대 제작</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left: 20px;"> <p>무대는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실험인 "이중슬릿 실험"은 두 개의 문을 중앙에 배치하여 제작하였다. 벽은 관련된 수식으로 가득 채워 관객이 과학자의 회의 현명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배우들은 벽면의 수식을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한다.</p> <p>큐빅들은 의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권위기도 한다. 누가 의자의 주인이 되는지를 쫓아가며 극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이다.</p> </div> </div> <p>o 감정 전달 및 인물 이입을 통한 문화예술적 감수성 증진</p> <p>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여겨지는 과학자의 신념과 욕망을 음악, 움직임과 함께 나타내어 관객에게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과학자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과학자를 통해 관객이 과학자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으며, 각자의 입장과 과학자를 연결시킴으로서 과학적 사고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10px; margin-top: 20px;"> <div data-bbox="389 1263 874 1592">  <p style="text-align: center;">과학자들의 대립</p> </div> <div data-bbox="903 1263 1388 1592">  <p style="text-align: center;">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p> </div> <div data-bbox="389 1686 874 1993">  <p style="text-align: center;">과학자들의 갈등</p> </div> <div data-bbox="903 1686 1388 1993">  <p style="text-align: center;">아인슈타인의 몰락</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연극 <양자전쟁> 공연 사진</p>

구 분	내 용
	<p>2. 전국 공연장 맞춤 수정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자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진행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도시는 문화예술 뿐만이 아니라 과학문화와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공연에 담겨 있는 과학 내용과 인문학적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유명 과학자(김상욱 교수,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 김범준 교수 등)를 초대해 함께 나누는 특별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과학자들은 이미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 과학문화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와 풍부한 과학적 지식으로 관객들에게 연극 관람과 더불어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알쓸신잡>의 김상욱 교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국과대표>의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유명 과학자와 함께 진행하는 관객과의 대화</p>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내부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자속적으로 보완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극단 - 아이디어를 연극 무대로 올리는 창작의 경험은 창의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하나의 작업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으는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객을 만나며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 더 많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 본 사업을 통해 작품을 더욱 완성도 있게 다듬어 관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극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적으로 공연을 보완하여 재연을 올리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활짝 열린 사고와 지구력이 필요하다.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발전하는 예술 단체로서 외계공작소가 꼭 밟아야 할 단계이다. 그 후에는 다양한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더욱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극단으로 성장하였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극단이 관객에게] 과학적 사고와 양자역학의 인문학적 가치 선사 - 그 어느때 보다도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본 연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사의 한 장면을 관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의 의미와 양자역학의 인문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객은 본 연극을 통해 한 단계 수준높은 예술과 과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 수 있다. ○ [극단이 연극계에] 다소 한정적인 연극 주제의 다양화와 종합적 예술화 시도 - 외계공작소는 현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양자역학을 다룬 <양자전쟁>, 전국민적 이슈인 우주 탐사를 다룬 <발사 6개월 전>, <발사 3시간 전>, 돌봄과 AI의 공존을 그린 <기억의 온도> 등을 창작하였다. 앞으로 또한 연극의 주제에 제한이 없음을 알릴 수 있게 참신한 주제를 시도하는 연극을 계속해서 제작할 것이다. 과학과 SF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시도들로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고전적 형태의 연극이 아닌 현시대 관객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술들과의 결합을 통해 연극으로부터 멀어져 간 관객들과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을 살아있는 연극의 현장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을 소재로 과학기술과 함께 살아갈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담론을 형성해 나가며, <u>연극의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u> ○ [극단이 사회에] 전 세계에 수출되는 K-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코펜하겐, 연극 산소, 갈릴레이의 생애 등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순수하게 국내 제작진과 배우들로 창작된 본 연극 <양자전쟁>은 그와 필적한 수준의 공연이라 자신하고 있으며 대본의 영문화, 높은 퀄리티의 영상화 및 영문 자막 추가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연과 투자가 이뤄진다면 순수 국내 제작진이 만들어 낸 K-연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날이 빠르게 올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 연극 <양자전쟁> 이외 외계공작소의 다른 작품들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슈를 담고 있기에 글로벌한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차후 창작 계획중인 작품들 또한 '비행의 역사' 년버벌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감성과 닿아있는 공연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극단으로 성장하고, 해외 연극 시장 진출에도 매진하고자 한다.